

博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黃振洙

자원봉사참여노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ies

2005年 12 月 日

漢 城 大 學 校 大 學 院

行 政 學 科

行 政 學 專 攻

李 成 玉

博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黃振洙

자원봉사참여노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ies

위 論文을 行政學 博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12月 日

漢 城 大 學 校 大 學 院

行 政 學 科

行 政 學 專 攻

李 成 玉

李成玉의 行政學 博士學位論文을 認定함

2005年 12月 日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고 생활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자원봉사의 지속과 생활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 총 339명(남자 169명, 여자 167명)으로 하였으며, 질문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요 노인 종합복지관 8개소에 360매를 배포하여 345매를 회수하였고, 자료선별을 거쳐 최종 339매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상관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ANOVA), 다중회귀분석 기법 등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참여 동기 전체에 있어서는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나, 하위 변인 중 '심리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에서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 참여 과정에서 심리적인 측면과 생활적인 측면에 대한 동기가 긍정적일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대인지지 변인은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지지 전체 점수뿐만 아니라 세부영역인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등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친구 등의 지지가 긍정적일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활동 실태 변인 중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인식 수준과 생활만족도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기간이 길수록, 활동시간이 빈번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았으며, 활동인식에 있어 긍정적일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 특성 중 성별 만이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 비하여 여성들이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4개 변인(참여동기, 활동실태, 대인지지, 개인적 특성)의 하위변인 중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활동실태 변인의 하위변인인 ‘활동인식’ 변인과 대인지지 변인의 하위변인인 ‘친구지지’ 변인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활동인식’ 변인은 $\beta=.400$, $p<.001$ 로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친구지지’ 변인은 $\beta=.177$, $p<.01$ 로 그 다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은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할 수 있었다.

첫째, 자원봉사참여 동기 변인은 전반적으로 관련이 낮으나, ‘심리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등의 변인은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다.

둘째, 대인지지는 변인은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높다

셋째, 활동 실태 변인은 전반적으로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낮으나,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인식’ 등의 변인은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다.

넷째, 개인 특성 변인은 전반적으로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낮으나, ‘성별’은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다.

다섯째, 참여동기 변인, 대인지지 변인, 활동실태 변인, 개인특성 변인 중 활동실태 변인의 하위변인인 ‘활동인식’과 ‘대인지지’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며, ‘활동인식’ 변인이 ‘대인지지’ 변인보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자원봉사참여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지속과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노인 인적자원의 활용과 자발적 참여의 촉진을 위해서 노인자원봉사 활동경로 및 활동분야의 제도적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가족이나 친구들이 같이 자원봉사에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단위를 개인에서 가족단위, 친구단위 등으로 조정하여 공동단위의 조직활동참여를 유인하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의 제작과 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을 상대로 한 체계적인 자원봉사교육과 인적기반의 구축 및 이의 과학적 관리와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전담할 ‘노인자원봉사지원단’과 같은 범국가적 통합기구의 설치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절한 정책개발과 이의 시행을 위한 제도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주요어 : 자원봉사, 참여동기, 노인, 생활만족도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고령시대와 노인문제	7
1. 고령시대의 개념과 특성	7
2. 고령시대의 노인과 노인문제	15
제2절 노인의 자원봉사참여	21
1. 자원봉사의 개념	21
2. 노인 자원봉사참여의 의의	25
3. 노인 자원봉사참여의 필요성	27
4. 노인 자원봉사참여의 이론	30
5. 노인 자원봉사참여의 현황과 문제점	34
6. 노인 자원봉사참여의 영향요인	44
제3절 노인의 생활만족도	46
1. 노인생활만족도의 개념	46
2. 노인생활만족도의 이론	47
3. 노인생활만족도의 영향 요인	50
제4절 선행연구	57
1. 자원봉사참여노인과 생활만족도	67
2. 선행연구의 시사점	63

제3장 연구조사 방법	65
제1절 연구조사의 설계	65
1. 연구조사의 모형	65
2. 연구조사문제	68
3. 연구조사가설	69
제2절 연구조사대상 및 도구	72
1. 조사대상	72
2. 조사도구	73
제3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75
1. 자료의 수집	75
2. 조사결과의 분석방법	76
 제4장 연구조사결과의 분석	80
제1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80
1. 인구통계학적 특성	80
2. 생활만족도 특성	89
제2절 참여동기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93
1. 참여동기 영역에 따른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93
2. 참여동기 세부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94
제3절 대인지지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103
제4절 활동실태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104
1. 활동경로	104
2. 활동기간	105
3. 활동시간	106
4. 활동부문	107

5. 활동인식	108
제5절 개인특성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110
1. 성별	110
2. 연령	110
3. 교육수준	111
4. 종교	112
5. 배우자상황	113
6. 가족구성원	114
7. 생활수준	116
제6절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변인	117
1. 변인 간 상관성 검증	117
2. 전체변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19
3. 생활만족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	120
제5장 연구조사결과와 함의	124
제1절 연구조사의 결과	124
1. 변인별 결과	124
2. 생활만족도 관련변인	126
제2절 연구결과의 함의	127
1. 변인별 영향력	127
2. 분석결과의 함의	130
3. 연구의 발전	131
제6장 결론 및 제언	133
제1절 결론	133

제2절 제언	135
참 고 문 헌	138
ABSTRACT	151
부 록<질문지>	155

표 목 차

<표 2-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9
<표 2-2> 합계출산율	10
<표 2-3> 학대 유형별 노인학대 경험(2002)	21
<표 2-4> 65세 이상 자원봉사 참여율(복수응답)	32
<표 3-1> 표집현황	72
<표 3-2> 질문지 배포 및 회수의 회수율	76
<표 3-3> 연구문제 1의 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77
<표 3-4> 연구문제 2의 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78
<표 3-5> 연구문제 3의 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78
<표 3-6> 연구문제 4의 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79
<표 3-7> 연구문제 5의 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79
<표 4-1>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	80
<표 4-2> 「2005년 고령자 통계」 상의 성별 고령인구의 비율	81
<표 4-3>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82
<표 4-4> 「2005년 고령자 통계」 상의 고령자 교육수준	82
<표 4-5> 조사대상자의 종교	83
<표 4-6> 「2004년 고령자 통계」 상의 고령자 종교비율	84
<표 4-7>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상황	84
<표 4-8> 「2004년 고령자 통계」 상의 고령자 배우자 상황	85
<표 4-9>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성원	86
<표 4-10> 「2005년 고령자 통계」 상의 고령자 세대구성	87
<표 4-11>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생활수준	88

<표 4-12> 「2005년 고령자 통계」상의 주관적 계층의식	89
<표 4-13> 자원봉사참여 노인의 생활만족도 수준의 점수 분포	90
<표 4-14> 65세 이상 노인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	92
<표 4-15> 참여동기 하위요인 간 상관 행렬표	93
<표 4-16> 심리적인 면의 세부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95
<표 4-17> 생활적인 면의 세부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97
<표 4-18> 외부기대 면의 세부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98
<표 4-19> 사회적 자극 면의 세부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100
<표 4-20> 사회적 보상 면의 세부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	102
<표 4-21> 대인지지와 생활만족도 간 상관 행렬표	103
<표 4-22> 활동경로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104
<표 4-23> 활동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105
<표 4-24> 활동시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106
<표 4-25> 활동부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107
<표 4-26> 활동인식 문항간 상관행렬표	109
<표 4-27>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110
<표 4-28>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111
<표 4-29>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112
<표 4-30> 종교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113
<표 4-31> 배우자 상황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114
<표 4-32> 가족구성원 상황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115
<표 4-33> 생활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117
<표 4-34>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간 상관행렬표	118
<표 4-35> 자원봉사활동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19

그림 목차

<그림 2-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8
<그림 2-2> 합계 출산율 추이	10
<그림 2-3>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11
<그림 2-4> 학대 유형별 노인학대 경험(2002)	20
<그림 3-1> 연구의 모형	66
<그림 3-2> 연구진행의 틀	67
<그림 4-1> 「2005년 고령자 통계」 상의 주관적 계층의식	88
<그림 4-2> 일반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92
<그림 4-3> 노인가구형태의 변화	11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생활개선과 의료기술 등의 발달에 힘입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저 출산율 등의 이유로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의 수와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통계청 발표(2005) '장래 인구 특별 추계'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평균수명이 2005년 현재 77.9세이며, 2030년에는 이보다 4.0세 높아진 81.9세, 2050년 83.3세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05년 현재 9.1%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8%로 본격적인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인류의 큰 업적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이제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라고 2002년 4월 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 주최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에서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던진 메시지는 고령화의 양면성을 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동아일보, 2002).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생존지속의 장수본능이 집단적으로 충족되는 지구촌의 인구 고령화 현실이 공멸의 재앙을 상징하는 시한폭탄으로 표현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 메시지는 인류가 이룬 장수의 꿈은 축복받을 경사이나 반면에 그로 말미암아 인류를 파멸케 하는 심각한 국면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1년 증가하면 노인 인구는 0.2%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0.47% 감소한다는 기업연구소의 연구발표

나(삼성경제연구소, 2002), ‘고령화 문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의 불이다’라며 기획 연재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언론매체의 정보성 홍보(동아일보, 2002), ‘다가오는 고령화의 물결은 전 세계에 어떤 파도를 일으킬 것인가?’라며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를 역설하는 학자의 우려(Peterson, 1999; 강연희 역, 2002: 22-26), ‘준비되지 않은 당신과 국가를 향한 시한폭탄’이라며 고령화 쇼크를 외치는 주장(박동석 외, 2004: 9-13) 등 이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권고들은(UN, 1998, 2002 ; OECD, 2000; <http://www.un.org>) 모두 고령사회의 심각성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서두를 것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고령시대의 위기를 충분히 체감케 하는 요소들이다.

과연 인류는 고령시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¹⁾

그것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다양한 노인문제가 야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노인의 삶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 같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간이 장기화 되는 노인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역할수행을 통해 건강한 노후와 보람 있는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공헌도와 삶의 질을 높여 고령시대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의 사회참여 중 자원봉사는 위기에 처한 현대인류가 파멸을 면할 위대한 패러다임으로써 고령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양곤 외, 2003: 21-23; 이상안, 2003: 252-254; 장세철 외, 2004: 241-253).

자원봉사가 현대 인류를 구원할 가치임이 오늘날 유럽과 미주지역의 선진

1) 본 연구에서의 ‘고령시대’는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통합한 개념으로 현재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그 시간대에 진입되어 있는 시기적 환경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예측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도래하고 그 파급효과 전방위적 사회문제임을 감안하여 ‘고령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고령시대’라는 용어는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 “고령시대, Business Challenges & Opportunities”(박래정·양희승, 2005. 02.28) 자료에서 국내에 처음 선보이고 있는 것 같다.

국에서 증명되고 있는데 세계의 초강대국 미국의 사정을 보면 미국사회를 흔들림 없이 지탱해 주고 계속 발전케 하는 원동력이 사회 저변에 뿌리내린 기부 및 자원봉사의 힘에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을 갖게 한다(성민선, 1996; 이강현, 2002; 한국자원봉사학회, 2005).

미국 노동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2004년 9월 현재, 자원봉사 참여 인구가 6,450만 명이고, 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24.6%라고 한다. 미국은 부유층에서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기부와 자원봉사의 전통이 자리 잡아 극심한 빈부격차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미국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U.S. Department of Labor, 2004; ; 한국자원봉사학회, 2005; <http://www.bls.gov>).

우리나라도 선진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지만 요즘 들어 국민들의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유수의 기업들이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사회봉사활동이 과거보다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점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써 「2004 보건복지백서」에 의하면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활동 자원봉사자수는 40여만 명인데 이는 전년도인 2003년에 비해 40%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보건복지부, 2005). 또한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4년 현재 4.0%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나타내며 우리사회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05).

그간의 대부분 노년기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상실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위축된 상태에다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악화로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환경에서 가족간에는 가장 가까운 혈연지간인 자녀세대간에서조차 문화적 괴리와 가치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불화와 반목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 인 고립과 소외현상 등 모든 면에서 침체기에 빠져 삶의 의욕이 꺾인 채 정신적, 신체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 십상이었다(황진수, 2003;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0).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들의 경제적 여건, 건강수준이 향상되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한 노인들이 많으며 특히, 이들 가운데는 뛰어난 기술과 고학력, 경제적 여유를 가진 노인들이 증가하여 사회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다양하고 실제 사회 참여활동의 수효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에게 사회활동으로 자원봉사의 기회가 주어지고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게 하여 생활만족도를 제고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노후의 보람된 삶이 보장되고, 사회적으로는 노인문제 해결과 함께 고령시대의 위기를 오히려 사회발전의 기회로 삼는 역전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황진수, 1999; 김성순, 2003: 427-435; 정태연 외, 2005: 55-71; 모선희외, 2005: 367-371).

그런데 우리사회는 노인 자원봉사라는 보고(寶庫)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년의 잠재적 생산성을 활용하는데 아직 충분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노인들이 비록 소득과 관련이 없다 해도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길 원하는데 사회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강하고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노년세대로 편입되면서 나타나는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인 것이다(김동배, 1999).

이에 고령시대 위기 조성의 주역이요, 부담의 대명사인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스스로는 삶의 보람을 찾고 이웃이나 국가사회에 두루 이익이 되어 마침내 고령시대 노인문제는 당사자인 노인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원봉사참여 노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하여 실증조사를 통해 이들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파악하는 한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의 자원봉

사활동 지속과 생활만족 향상을 위한 제안을 통하여 관련 정책마련의 기초 자료 활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이 지각하는 포괄적인 생활만족의 수준을 알아보고, 자원봉사참여노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지속과 그로 인한 생활만족의 향상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노인들의 자원봉사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 제반의 관심을 제고시키며 자원봉사참여 노인들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본 연구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문헌연구와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를 병행한다. 문헌연구의 주 자료는 자원봉사에 관한 국내외 관련서적과 논문, 그리고 정부간행물, 행정기관이나 자원봉사 단체의 자료를 활용하고,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의 기초 자료를 참고한다.

문헌연구에서는 자원봉사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먼저 고령사회의 위기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원봉사에 대하여 그 개념과 의의 및 전개 상황을 검토한 후, 노인과 관련하여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실증조사연구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의 노인복지센터 등 주요 노인종합복지관과 경기 북부의 고양시 일산노인복지관을 통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자원봉사의 참여동기와 대인지지, 활동실태 및 개인적 특성과 주관적인 생

생활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의를 끝으로 본 연구에 대한 요약과 결론을 내리고,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을 통한 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참여동기변인, 대인지지변인, 활동실태변인, 개인적 특성변인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관련 변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분석함으로써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에 이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실천적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변인들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조사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자원봉사 여건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복지향상과 고령시대의 위기를 해소할 수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고령시대와 노인문제

1. 고령시대의 개념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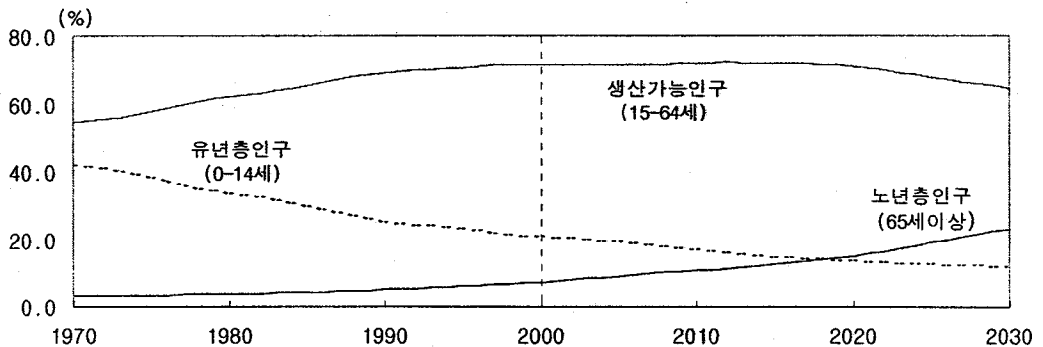
1) 고령시대의 개념

고령시대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먼저 UN의 연령기준에 의한 인구구성에 따른 고령사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UN에서는 전 세계적인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198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고령화 세계총회를 개최하여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1991년 유엔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설정하였는데 UN은 연령구조에 따라 한 국가의 인구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 미만인 국가를 유년인구국(young population), 4~7%인 국가를 성년인구국(mature population), 7% 이상인 국가를 노년인구국(aged population)이라고 하는데 고령화 사회의 분류를 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 이상~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 이상~20%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보건복지부, 2000; 삼성경제연구소, 2002; 통계청, 2005a).

고령시대는 고령화 사회라는 사회적 현상이 특정지역이나 공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포괄적 시간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의 평균수명

이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개선의 영향으로 크게 높아지는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진입된 시기라 할 수 있다. 고령시대로의 진입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데, 단순히 노인인구가 많다고 하는 양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노인을 누가 어떻게 부양하고 보호할 것이며, 노인 자신은 향후 20-30년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질적인 문제까지 결부되는 등 인간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고민하여야 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김성순, 2003: 427-435; 박동석·김대환·이연선, 2004).

<그림 2-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자료: 통계청(2005), 「장래인구추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0년도를 기하여 전체 인구의 7%를 초과,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이제 노인과 관련된 제반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s)가 표출되기 시작하였다(변재관, 2002a). 평균수명의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2005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약 438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9.1%이며, 오는 2018년에는 14.3%에 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그림2-1>, <표2-1> 참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옮겨가는 데 약 18년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며, 또한 그로부터 다시 7년 후인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여러 가지 사회변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있어서도, 뒤늦게 고령화의 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시기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압축적인 고령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115년이 소요되었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는 일본도 24년이 소요되었다. 2, 3세대를 거치면서 40-50년 동안에 고령사회가 완만히 진행된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갑자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또 ‘초고속’으로 고령 사회를 맞이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표2-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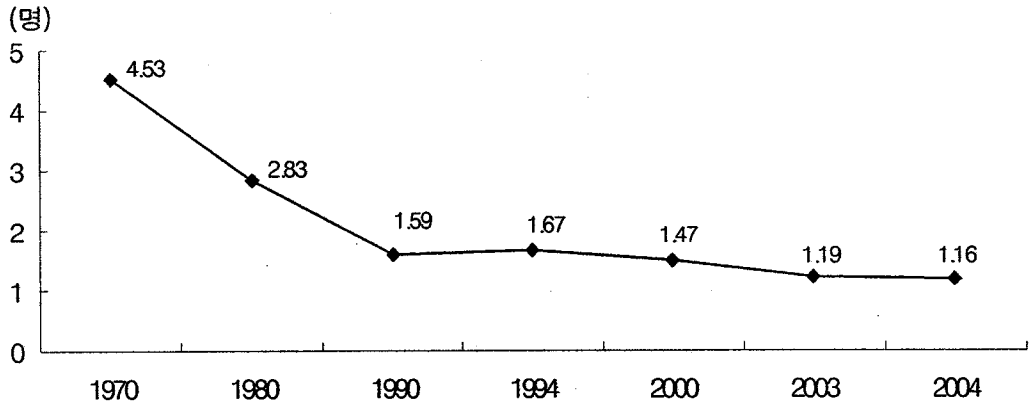
	1995	2000	2004	2005	2010	2018	2026
총인구	45,093	47,008	48,082	48,294	49,220	49,934	49,771
0~14세	10,537	9,911	9,417	9,240	8,013	6,495	5,796
15~64세	31,900	33,702	34,483	34,671	35,852	36,276	33,618
65세 이상	2,657	3,395	4,182	4,383	5,354	7,162	10,35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23.4	21.1	19.6	19.1	16.3	13.0	11.6
15~64세	70.7	71.7	71.7	71.8	72.8	72.6	67.5
65세 이상	5.9	7.2	8.7	9.1	10.9	14.3	20.8

자료: 통계청(2005), 「장래인구추계」.

또한 오는 2050년에는 우리나라 고령인력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일

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지난 2000년의 우리나라 고령자 비율은 OECD 30개국 중 가장 낮은 11%에 머물렀던 것을 생각해 보면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고령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그림2-2> 합계 출산율 추이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연보(총괄, 출생, 사망편)」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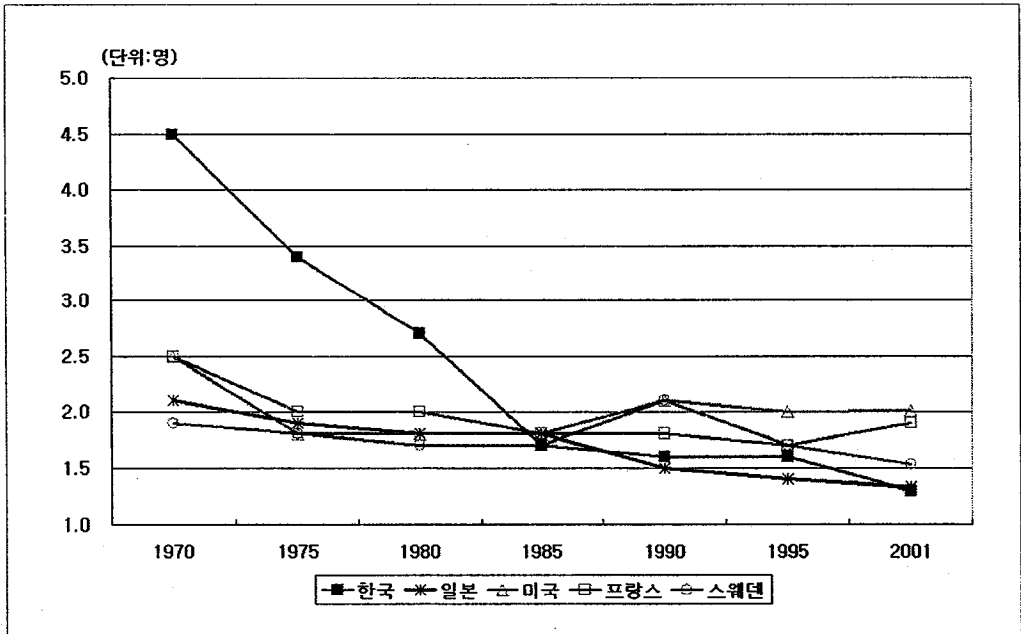
<표2-2> 합계 출산율

(단위 : 인구 천 명당)

	1980	1990	1994	2000	2003	2004
출생아수(천명)	865	659	729	637	493	476
조출생률	22.7	15.4	16.3	13.4	10.2	9.8
합계출산율(명)	2.83	1.59	1.67	1.47	1.19	1.16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연보(총괄, 출생, 사망편)」 각년도

<그림2-3>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 2002년 : OECD평균 1.6, 일본 1.32, 미국 2.01, 뉴질랜드 1.90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주된 이유는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대신 수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15~49세의 여성 1명이 출산하는 자녀는 6명(1960년)→4.53명(1970년)→2.83명(1980년)→1.59명(1990년)으로 떨어져 2004년에는 1.16명으로 낮아졌으며(<그림2-2>, <표2-2> 참조), 이는 세계적인 저 출산 국가로 꼽히는 프랑스(1.89명), 일본(1.33명)보다 적은 숫자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통계청 발표 장래 인구 특별 추계 결과(2005)에 의하면, 1960년에 52.4세에서 66.2세(1980년)→71.1세(1990년)→75.9세(2000년)로 늘었으며, 2005년 현재 77.9세로 나타나며, 2020년에는 80.7세, 2030년에는 81.9세, 2050년 83.3세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통계청, 2005b).

또한 <그림2-3> 합계출산율 국제비교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격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증명되며 이는 선진국에서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 2004).

2) 고령시대의 특성

한국개발연구원(2002)은 보고서에서 2002년 현재 ‘10명의 청·장년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17년 뒤인 2019년 에는 5명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려야 하며, 노인 인구의 증가가 저축률 감소,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크게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고령시대에는 가족 관계도 크게 달라지게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자식과 떨어져 사는 비율이 90년 25.8%→95년 36.5%→2000년 44.9%로 늘어났다. 고령화는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반면 이들에게 의지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15~54세)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율이 99년에는 9.6%였으나 2030년에는 35.7%로 늘어난다(통계청, 2005). 즉, 젊은이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점이다. 일할 능력이 있고 생산성이 높은 인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경제활동을 적게 하면서 의료 연금 등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계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령시대에 들어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일할 능력이 있고 생산성이 높은 인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경제활동을 적게 하면서 의료 연금 등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계층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부담은 많아진 반면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점에서 세계 어느 선진국도 경험하지 못한 과속도의 고령화를 맞는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경제적 성숙도나 대비가 불충분한 여건으로 크게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

하다고 봐야 하겠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것으로, 노인부양, 보건의료·복지 등 여러 분야의 문제도 그만큼 빨리 가시화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고령화는 노동인구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 둔화를 가져오며, 이에 따른 노인복지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재정 위기를 경고하는 우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고령시대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참고자료, 2004).

첫째,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저 출산·인구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 소비위축, 투자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전망이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화는 향후 수십 년 간 일인당 GDP성장률을 연간 0.25~0.75%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0~2050년 기간 중 연평균 GDP성장률이 2.9%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저 출산·인구 고령화 자체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기보다는 연금·의료제도, 복지서비스 및 노동시장구조 등 기존의 제도가 저 출산·고령화시대에 정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둘째,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첨예화 된다.

저 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피부양 노인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의 노년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자 감소 및 노인증가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현상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저성장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득분배 및 재분배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2000년 우리나라의 노령 관련 연금지출비중은 GDP대비 2.1% 수준으로 OECD 평균(7.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나, 2050년경에는 GDP의

10.1%수준으로 상승하여 OECD 평균(10.8%)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그 증가폭(8%)은 OECD 평균증가폭(3.4%)의 2배를 상회하여 국민 부담률은 급속히 증가된다. 또한,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있어 「부담의 형평성-급여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후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장기재정이 불안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서의 존립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이 변화된다.

저 출산·고령화는 노동력의 양적·질적 변화뿐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 등 환경변화와 맞물려 임금·정년제 등 고용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산업인력의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주력산업의 고령화를 초래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노동력 규모의 감소 및 구성의 고령화로 경제 활력의 저하가 우려된다.

넷째, 재정·금융 및 산업구조가 변화된다.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수급율(수급자/가입자)이 급증하고,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구조로 인해 심각한 연금재정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즉, 군인·공무원 및 교직원 등 공적직역연금의 적자발생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재정의 부담능력 초과가 우려된다. 또한, 저 출산 등에 따른 근로인구의 감소는 조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경제활동참가율의 획기적 증가가 없는 한 세입의 감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나, 노인인구의 증가는 연금수급자의 증가 및 노인 의료·복지비용 등 재정지출의 급증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정수지는 장기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다섯째, 사회복지부문이 변화된다.

저 출산·고령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만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 자체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자녀 출산·양육, 노인부양의 문제가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전환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폭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국가·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라 가족주기가 변화하여 고령자의 독립생활 기간 증대 및 생계독립 경향의 증가에 따른 Care비용의 증대 및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 질환에 대한 의료·요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 및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2. 고령시대의 노인과 노인문제

1) 노인의 개념

노인(老人)이란 '늙은이' 또는 '나이 많은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용어로, 그 개념이 각 국가나 사회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배경과 노인 개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최순남, 2002: 259).

일반적으로 노인의 개념을 정의할 경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노인에 대하여 몇 가지 특성을 들어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령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견해인 노인에 대한 특성으로 개념을 정의하는 입장은 1951년 7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 노년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http://www.iagg.com.br>)에서 발표된 자료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자료에 의하면 노인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 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란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하기에 신체조직상 결손이 있는 사람이며, 둘째,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며, 셋째, 신

체의 기관, 조직기능상 감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며, 넷째, 생활체의 적응성이 정신적으로 결여 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며, 다섯째, 조직 및 기능 저장의 소모로 적응감퇴 현상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번째 전해인 노령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방법으로 측정된 연령에 의해 어느 정도 연령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 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미만인 자로 하며, 「노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 두 가지 전해를 종합해 볼 때, 노인이란 일반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기능 및 능력이 감퇴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 달한 사람으로서 생활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가 및 학자들의 전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약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노인으로 분류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60세를 준거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인생의 시기를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5단계로 나눌 때, 대략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둘째, 전통적으로 60세를 인생의 전환기로 보고, 이 시기를 환갑으로 하고 있다는 점, 셋째, 최근 기업을 비롯한 각종 직장에서의 정년퇴임 시기가 60세 이전으로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 넷째, 일반 직장인의 정년퇴임 시기의 단축과 함께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2) 고령시대와 노인문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의 질병, 고독, 빈곤, 학대,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만 살펴본다.

(1) 노인빈곤문제

오늘날 현대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인문제는 의학의 발달과 보건위생의 개선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빈곤문제이다.

통계청 발표 「2005년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2003년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없는 경우가 47.6%였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노인은 10.4%에 불과하였다. 또한 자신의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경우는 9.6%, 「불만족」은 43.3%로 대체로 소득과 소비가 열악한 사정을 나타내주고 있다.(통계청, 2005b)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대부분은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요인으로 영세농의 도시유입과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열악, 빈곤의 세습화를 들 수 있으며 역사적 요인으로는 해방 후의 월남실향민, 한국전쟁 영향으로 형성된 도시빈곤층과 개인적 요인으로 동기부족, 무질제, 게으름, 의타심, 저교육수준, 가구원의 사망, 폐질환, 불구, 부적응 등의 요인이 있다. 노인은 고령일수록 수입이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더욱 빈곤하다 (황진수, 2005: 29-30).

(2) 노인의료문제

보건복지부 발표 「보건백서」(2005)에 의하면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약 14.8%인 62만여 명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요양보호 대상자로 추계하고 있다. 앞으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2010년 79

만여 명, 2020년에는 114만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 노인에게 높게 나타나는 노인치매 출현율은 2001년 7.6%에서 2004년 8.3%, 2010년에는 10.6%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요양보호비용(잠재)도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 3조 4천억 원에서 2007년 4조 1천억 원, 2020년에는 8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8.3%인 346천 명 정도가 치매노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비율은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매는 치매노인은 물론,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매우 심각한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은 자연적 노화 이외에 관절염, 중풍(뇌졸중),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과 치매, 정신질환에 의한 생활 장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보건의 문제는 비단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반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기본적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고 노인 단독 또는 노인만의 가구 증가, 간병비용의 부담 등으로 가정에 의한 노인요양보호는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만성퇴행성 질환 증가로 장기간 치료와 관리가 요구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입원에 따른 간병비용 부담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입원 치료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노인요양 및 복지서비스 대상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어 있어 중산층 등 일반가정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재가 서비스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의 사회화'를 통해 요양보호 욕구(needs)가 있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노인 요양보장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b, 2005: 130-137).

(3) 노인부양 문제

보건복지부 발표 「보건백서」(2005)에 의하면 2003년 말 현재 홀로 사는 노인은 64만3천명으로 추산되며, 홀로 사는 노인수의 증가율(1995~2000)은 11.1%로 (동기간 노인인구증가율 5.5%)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437만 명중 1.4%만이 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포함)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b, 2005: 142, 144).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의해 가정의 노인부양에 대한 전통적 책임의식이 붕괴되고 있다. 또한 유래 없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노인을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 및 전문종사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가치와 구조의 변화는 노인의 사회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노인이 사회적 소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노인의 문제는 어느 계층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인복지는 저소득층 노인과 건강하지 않은 노인에 대한 복지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 왔지만, 산업구조의 변화, 사회가치와 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하며 이전의 선별적이고 일방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으로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보건복지부b, 2005: 141-147).

이러한 노인문제가 생기게 된 구체적인 배경으로는 인구구성의 변화로서 평균수명과 평균여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사회의 도래를 들 수 있으며, 고도의 첨단능률성을 추구하며 과거의 경험적 기술을 도외시하는 산업화의 영향, 핵가족화에 의한 가족제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노인의 부양책임이 가족과 자녀, 그 중에서도 장남이 부양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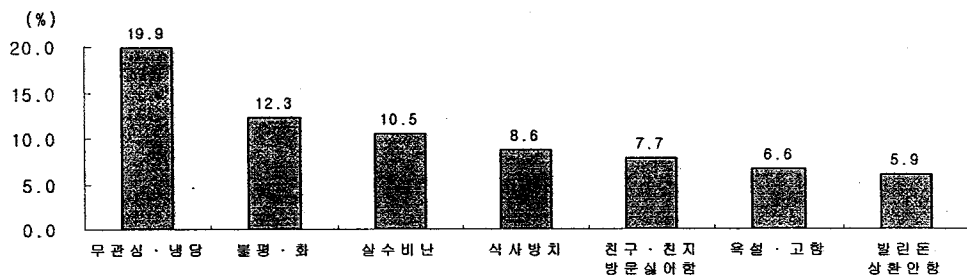
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인들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으나,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노인부양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4) 노인소외와 갈등 문제

통계청 발표 「2005년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경험한 노인학대 유형을 보면, 정서적인 학대가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2-3>과 <표 2- >과 같이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경우」가 19.9%로 가장 많았고, 「의견을 말하면 불평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12.3%)」, 「친구나 친지의 방문을 싫어하는 경우(7.7%)」로 나타났다. 「실수를 비난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말을 하는 경우」와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데 내버려 두는 경우」는 각각 10.5%, 8.6%가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b: 218).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가치와 구조의 변화는 노인의 역할 상실로 인한 노인의 사회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노인이 사회적 소외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쉽게 노인학대를 유발하게 되는 점은 또 하나의 심각한 사회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림 2-4> 학대 유형별 노인학대 경험(2002)



<표 2-3> 학대 유형별 노인학대 경험(2002)

(단위 : %)

	학 대 상 황	있어	없어
방임적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 노인을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8.6	91.4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7.7	92.3
정서적	노인이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12.3	87.7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19.9	80.1
언어적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6.6	93.4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10.5	89.5
경제적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일부러 갚지 않는다.	5.9	94.1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실태조사」

제2절 노인의 자원봉사참여

1. 자원봉사의 개념

1) 자원봉사의 일반적 개념

자원봉사의 어원은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will)와 욕망(desire)을 나타내는 라틴어의 자유의지(Voluntas)에서 기원한 것이다. 프랑스어로는 ‘기쁨의 정신’, 영어의 명사로는 ‘지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자발적인 의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이나 사회에 공헌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김남순, 1997).

‘자원봉사’라는 용어는 1930년의 세계 사회사업가대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대상과 영역 및 목적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

나, 자원봉사라는 말이 현재는 자원봉사자(volunteer), 자원봉사활동(volunteerism)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용어 중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volunteerism의 의미는 '어떤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행해진 모든 것을 총칭하는 용어로 민간기관, 비영리기관과 재단, 종교, 자선사업은 포함되지만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 활동'이다.

외국의 자원봉사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미국사회사업가협회가 발간한 「미국사회사업백과사전(Encyclopedia of Social Work)」(1997 개정판)에서는 자원봉사란 욕구가 인식되어졌을 때 어떤 구체적인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태도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것은 무언가 기대하거나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을 초월하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사회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지역사회개발, 주택, 교정, 아동복지 등 제분야에서의 참여활동에 대한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NASW, 1997).

영국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자신이나 직접적인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직접적인 보상 없이, 그리고 국가나 기관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닌, 자유스런 선택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무보수성과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Jos Sheard, 1995).

일본 오오사카 자원봉사협회에서는 자진해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무급성보다는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大阪ボランティア協會, 1993).

한편, 우리나라 여러 학자들의 정의 방법을 살펴보면, 이성록(2003)은 자원봉사활동을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환경을 자발적·자주적으로 만들어 가는 개개인들의 협동적·체계적 노력으로 정의한다. 김한구 외(1997)는 자원봉사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자원이나 능력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타인과 사회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고 정의하였다. 조휘일(1998)은 자원봉사란 특정한 요구의 인식하에 사회적 책임감의 태도를 가지고 금전적 이득에 대한 관심 없이 또한 기본적인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행동할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특정요구의 인식 하에 사회적 책임감의 태도를 가지고 금전적 이득에 대한 관심 없이 또한 기본적인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동할 것을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김동배(1999)는 자원봉사활동은 이상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와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선의 능력과 시간을 자발적으로 할애하여 무보수로 봉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자원봉사자(Volunteer)라고 한다.

이상의 정의들에는 다양한 요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의 무보수적인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다. 즉,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 일의 대가로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에 종사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경비인 교통비와 식비를 받는 것은 자원봉사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Brudney, 1990; 김인, 허용훈, 1997; 조휘일, 1995: 74).

이상의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 및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서 강조해 온 무급성, 자발성, 사회복지영역 위주의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 민간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조집단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의 의미에서 가장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신을 섬긴다고 하는 봉사서비스의 정신에서 비롯된 애타주의(愛他主義)의 배편다고 생각하는 자선의식과 같은 일방적인 봉사의 개념이 주가 되어 왔다. 오늘날의 자원봉사란 사람들을 도와주는 능동적인 행위로 사회전반에 걸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으로 자신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운동이다. 또한 자원봉사는 자발적인 정신으로 어떤 대가나 보상 없이

남에게 도움을 주며, 기능의 유지나 회복, 발전을 위해 서로 상부상조하는 정신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관심이며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자원봉사는 자유와 인간존중의 정신을 배경으로 한 사랑의 운동이며, 자원봉사활동은 오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인간사회에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현대사회에 와서는 그 어느 때보다 복지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 혹은 제도적 요청으로써 주목받게 되었다는 것이다(이상안, 2003:29-30; 김범수 외, 2004: 21; 김동배, 2005: 70-72; 이성록, 2005: 39).

2) 자선과 구별되는 자원봉사 개념

현대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됨에 따라 ‘자원봉사’라는 말이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 사회봉사, 자원복지활동 등의 용어에서 보는 것처럼 자원봉사의 개념은 국가, 사회, 학자에 따라, 그리고 활동영역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 되고 있다. 이렇듯 자원봉사의 개념정의가 다양한 것은 자원봉사가 가지는 특성과 행동 영역의 포괄성 때문이다. 자원봉사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주요한 관점은 시대적 사조로 신보수주의자의 대체적 관점과 복지다원주의자의 보완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과 사회현상학적 관점 등이 있고, 논점으로는 동기를 기준으로 한 것과 행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있으며, 이러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개념정의에 차이가 있다(볼런티어 21 옮김, 2002: 23-27; 이상안, 2003: 29-30; 김범수 외, 2004: 21; 김동배, 2005: 70-72; 이성록, 2005: 39).

이성록(2005: 40)은 행위자 중심의 관점에서 자원봉사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자원봉사의 개념과 관련된 근본적 혼란은 자선과 자원봉사의 혼동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 자원봉사는 단순히 자선 또는 도움이 아

나라 그 ‘자선’이나 ‘도움’을 매개로 인간생존 조건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행위’라고 정의한다. 즉, 자원봉사는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선이나 선행 등의 도움(helping service)이라는 실천체계를 통하여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목적체계로 구성된 사회적 행위체계(paradigm)라는 것이다. 자원봉사의 궁극적 목적은 변화를 위하여 무엇인가 일을 해내는 것이므로 자원봉사의 참여는 사람과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한편, 2005년에 국회에서 정부안대로(행정자치부) 확정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법률 7669호, 2005) 제3조 제1항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의 개념을 단순한 자선행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노인 자원봉사참여의 의의

2005년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참여 실태 등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발표²⁾에 의하면, 2002년의 16.3%보다 4.2%증가한 전 국민의 20.5%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별의 비율은 여성 57.7%, 남성 42.3%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7.8% 30대, 20대 순으로 '02년도에 비해서 50대이상의 자원봉사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21%→29%)

2)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 등에 대한 연구용역(사단법인 블런티어21)을 실시 - 전국 만20세 이상 남녀 총1,611명 개별면접조사 표본오차 $\pm 2.5\%$ (블런티어 21, 2005)

노년기는 상실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에 대한 창조의 시기이기도 하다. 과거에 노인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자 보다는 서비스를 받거나 도움을 받는 자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노인들은 건강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으며, 평생을 통하여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가 될 수 있다. 퇴직을 통해 노인들은 직업 활동에서 물러선다는 사실이 많은 아쉬움과 불안을 안겨줄지 모르나 한편으로 이는 새로운 일을 위해 물러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장인협, 최성재, 1993).

첫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퇴직으로 상실되었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맡게 된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지위와 그러한 활동의 구체적 조직 안에서 새로운 지위와 그 지위에 맞게 맡겨진 일을 보다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는 사회의 일선에서 물러나 자칫하면 상실되기 쉬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해주어 자신이 사회에 유용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의 인정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은 노년기에 있어서의 퇴직으로 인한 역할의 상실로부터 사회적 소외의 현실에서 얻은 부정적 자기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등 소외감을 극복하여 사회적 소속감을 회복시켜 준다.

넷째, 노인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기성장과 자아실현을 돕고 창의성과 책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노화 또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된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무엇보다도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하게 된다. 긴 세월 동안 사회에서 생산적으로 활동해 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연마한 지식 및 기술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공헌함으로써 사회의 개선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는 사회의 일선에서 물러나 자칫하면 상실하기 쉬운 자신의 사회적 가치성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해주어 자신이 옛날처럼 사회에 유용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가치를 갖게 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는 사회복지에 큰 공헌을 하고 나아가서 사회의 개선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어 비노인층이 노인을 보는 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노인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은 복지자원의 다원화로써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인 통합을 가져오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본다.(권육상 외, 2001: 290)

이처럼 노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자신은 물론 서비스 대상자나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 큰 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노인들은 단순한 국가의 수혜자로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에서 볼 때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시대적 요청으로 다방면에서의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허정무, 2000: 251).

3. 노인 자원봉사의 필요성

고령시대에 들어서면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노인의 악화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빈곤노인문제, 상시질환에 대한 적정의 의료수급 문제, 사회적 소외와 학대에 따른 사

회적 이탈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자원봉사와 같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참여 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노인의 자원봉사의 필요성은 고령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 자원봉사의 필요성으로는 자기성숙, 공동체의식 강화, 자원봉사의 당사자성³⁾을 주로 들고 있는데(박태영 외 3인, 2004: 264-268; 김범수 외 9인, 2004: 244-246) 본 연구에서는 자아실현, 사회공헌, 사회통합으로 정리하여 전개한다.

1) 삶의 질 향상

노인의 자원봉사 필요성으로 먼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들 수 있다. 자원봉사를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노인의 개인적인 성취는 신체적으로는 활발한 활동을 통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정신적으로는 역할수행을 통한 존재감의 확인과 성취감의 확대에 의한 자아실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심신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삶은 한마디로 삶의 질 저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후로 인한 신체적 기능의 약화와 각종 노인성 질환과 더불어 정신력의 퇴조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나 가정에서의 역할상실로 모든 면에서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이 고령화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삶의 질 저하의 환경에서도 자원봉사는 신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양면에 걸쳐

3) 노인 자원봉사의 필요성의 하나로 들고 있는 '자원봉사의 당사자성'은 주로 일본인 학자들(木原孝久, 小田兼三, 松原一郎)에 의해 주장된 것을 국내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요점은 봉사자와 피봉사자의 대등성을 말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노인자원봉사의 필요성이라기보다는 노인에게 국한되지 않은 자원봉사에 임하는 모든 사람의 심리적 자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만의 자원봉사 필요성이라고 보지 않는다.

스스로의 성취감을 얻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2) 사회공헌

노인의 자원봉사 필요성으로 사회공헌을 들 수 있다. 노인은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여 어떠한 사회적 공헌의 여지도 봉쇄된 사회 활동의 방관자가 되어 사회로부터 잊혀져 가는 처지임에 고독과 소외감으로 스스로 무기력에 빠지고, 그로 인해 심신의 퇴조를 더욱 빠르게 하는 등 노화를 조장하는 다중의 요인 속에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로운 시간의 연속되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회일원이다.

그러나 이처럼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게 보이는 절망적인 노인의 삶도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적 공헌의 역할수행을 통하여 활기차고 희망적으로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다. 그것은 자원봉사라는 인생의 활동무대를 찾아 오랜 사회생활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 기능, 기술을 나누고, 이의 계속적 활용 기회를 가짐으로써 저마다의 아름다운 인생 정리 활동을 펼치는 의미임과 동시에 사회공헌으로의 승화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 사회적 인적자원의 활용지속이라는 자원적 의미의 가치를 포함하여 노인문제의 최소화와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에 기여한다는 점 등 노인의 자원봉사는 고령시대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광범위한 효과성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공헌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은 한층 힘을 얻는다.

3) 사회통합⁴⁾

4) 사회과학은 '사회통합'에 대한 이론이나 논의를 이미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바 여기에서는 일체감이나 공동체 의식 정도의 개념에 그치고 심도 있는 이론적 논의의 전개는 후속연구에 미룬다.

노인의 자원봉사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은 현업에서 떠난 노인의 사회적 소외와 배제에서 일어나는 노인 스스로의 일탈감과 유리감을 해소하는 한편 노인을 사회에서 떠난 존재로 여겨 국외자(局外者)로 취급하는 일반적 사회시각을 불식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부족함 없이 역할 수행을 이루게 한다.

또한 노인의 자원봉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학대적인 요소인 사회적 소외로 인한 고독감의 해소와 더불어 노인의 사회 소속감 욕구 해소 등으로 사회적 일체감과 연대감을 회복하여 사회일원으로서 당당한 역할수행을 가능케 하여 결국 건전사회 발전의 기틀인 사회통합을 이루게 한다.

4. 노인 자원봉사참여의 이론

자원봉사참여에 관한 이론은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김동배(2005)의 자원봉사 동기의 이론적 기초를 참고하여 참여에 초점을 두어 몇 가지 이론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1) 동기이론

자원봉사는 봉사활동에 분명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원봉사자가 이를 지각할 때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심리학자들이 정립한 동기이론을 중심으로 최근에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설(Maslow, 1970),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맥클랜드와 앳킨슨(MacClelland & Atkinson)의 성취동기이론 등으로 관련을 지어 설명하고 있다(김동배, 2005; 96-99).

2) 합리성이론

행위의 합리성 이론에 따르면 자원봉사는 가치 합리적 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는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봉사활동을 개인적 신념으로 한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옳은 것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김동배, 2005: 88).

3) 활동이론

활동이론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활동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하며, 특히 제도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활동이 정지 되었거나 줄어든 노인들은 이 욕구가 더욱 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서 노인은 사회활동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만족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욕구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충족된다는 활동이론은의미가 있다.

활동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와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정적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 또는 생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태 외, 2002: 441-442).

4) 교환이론

사회복지연구회(1999: 29)의 정의를 보면 교환이론이란 말 그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들에게 지식과 경험 등 생애를 통하여 얻어진 자원들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교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노인의 자원봉사에서 교환이론이 제시되는데 이 이론은 교환하는 행위자간에 가치 있는 보상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이 포함되며 그것은 경제적, 정서적, 노동서비스 등의 측면이라고 본다.

김동배(2005: 89-90)는 자원봉사의 태도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의 적절성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자원봉사의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에 대한 지식과 숙련도가 향상되고 이에 상응한 보상이 주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교환이론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행위 등 자선활동에는 반드시 보상요인이 수반되며 이러한 보상에는 심리적인 보상, 사회적 보상, 경제적 보상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교환이론으로 설명되는 점은 노인이 갖고 있는 교환자원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는 활동이라는 점과 잊혀지고 상실된 교환가치의 새로운 발견과 가치 증진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참여는 설득력을 얻는다고 본다.

5) 지속이론

지속이론은 인생의 초기부터 형성된 생활의 연속적인 활동이므로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이 된다는 관점으로 노년기의 생활이 인생 초기에 형성된 것의 연속이며, 건강이나 재정적 문제들이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로 본다. (류기영 외, 2001:294).

또한 지속이론은 왜 자원봉사자들이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머무르느냐를 설명하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인간행동의 본능이론을 거부하고 개개인은 사고와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현재와 미래의 행위에 대해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며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이 바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여

길 때 그 일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지속이론에서는 인간행동을 지속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선호도, 수단성, 기대성의 요소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을 설명하고 있다(Moore, 1993).

첫째, 선호도는 일에 대한 흥미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려면 먼저 자신이 하고 있는 자원봉사업무에 대하여 흥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수단성은 욕구충족에 대한 신념으로 동일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개인의 마음에 있는 신념과 관련되어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려면 자신이 현재 행하고 있는 활동이 자신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동기 내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기대성은 봉사활동 수행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자원봉사를 지속하려면 자신이 자원봉사활동을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인식과 봉사업무 자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6) 집합행동이론

집합행동이론에 관하여 김동배의 (2005: 99-101)설명을 토대로 살펴보면 최근에는 자원봉사가 단순히 남을 돕는 이타주의적 행동이 아니라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복지를 달성하려는 지역복지공동체를 위한 집합노력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이 입장은 지역 주민 모두를 복지의 공급자이자 수혜자로 보며 자원봉사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는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자원봉사는 하나의 집단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집합행동이론이라는 것이다.

이 집합행동이론으로 보는 자원봉사참여의 의미는 향후 전개되는 자원봉

사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5. 노인 자원봉사참여의 현황과 문제점

1) 노인자원봉사참여 현황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40%, 호주의 경우는 17%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노인의 6.7%(2005년 통계청 자료) 참여하고 있어 아직은 저조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율이 낮은 것은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부족, 활동할 기관 및 프로그램의 미비, 노인의 건강 및 경제수준이 아직 남을 도울 만큼 여유롭지 못한 점과 노인들의 권위주의적이며 수동적인 성향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인복지는 저소득층 노인과 건강하지 않은 노인에 대한 복지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 왔지만, 산업구조의 변화, 사회가치와 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하며 이전의 선별적이고 일방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으로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과 건강하지 않은 노인, 저소득층 노인과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의 서로 다른 복지욕구에 대해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개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노인복지 서비스의 방향도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의 체계 및 인식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인 여가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노후생활을 보람 있게 보내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b, 2005: 146).

1997년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지역봉사회

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노인들의 전직 경험을 살려 기초질서 지도, 교통질서 안내, 각종 재난사고 신고 등 자발적인 사회적 서비스 제공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2005년 고령자 통계」에서 살펴본 고령자 자원봉사 참여율은 <표 2-4>와 같다. 2003년 65세 이상 인구의 5.6%만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주로 활동한 분야는 「지역의 환경보전(65.4%)」과 「복지시설관련(24.9%)」 활동이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자원봉사 경험 비율이 8.4%로 여자 3.7%보다 높았으며, 남자는 여자에 비해 「지역의 환경보전」, 「국가 지역행사」, 「재해지역 돕기」에 많이 참여하였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복지시설 관련」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b: 236).

그러나 건강하고 경제 및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점차 노년세대로 편입되어 가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 정책적인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2-4> 65세 이상 자원봉사 참여율(복수응답)

(단위 : %)

	자원봉사 참여율	지역의 환경보전	국가· 지역행사	지역교육관 관련	복지시설 관련	재해 지역돕기	기타
65세이 상	14.6	38.0	10.4	8.7	38.4	10.0	14.9
남자	5.6	65.4	4.9	1.7	24.9	5.1	3.2
여자	8.4	73.5	6.5	2.9	14.4	6.8	2.6
	3.7	53.3	2.6	0.0	40.4	2.4	4.2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3년도

2)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노인자원봉사

(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를 통해 공동체의식 함양 및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배경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보호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2005)되었다. 그 동안 자원봉사 활동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거나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또한 사전 준비 없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여김으로써 자원봉사를 전담하는 행정기관이 미흡하고, 자원봉사 교육기관이 없어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질이 낮은 실정이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상호 협조하는 연대의식 함양 등 새로운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건전시민운동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민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봉사활동 분야도 사회전반에 걸쳐 그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둘째,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아래 수행한다.

셋째,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지역·학력·장애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하며

넷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자원봉사활동이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등의 기본이념으로 전개되는 순수 시민운동의 일종으로써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를 명문화하였으며 지역단위 자원봉사 인프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근거와 설치주체를 명시하고 운영형태의 법인화를 통해 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사회전반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공적자원으로 전환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하고 권장·지원토록 역할을 명시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이 환경, 재난구호 등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고 관련 부처도 교육인적자원·행정자치·보건복지·문화관광·여성부 등 전 부처에 걸쳐 있어 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자원 봉사정책을 조정·심의토록 하였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하여 전국단위 자원봉사단체의 정보연계 및 민간자원봉사활동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및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건의한다.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봉사수준도 단순노동에서부터 전문분야에까지 이뤄지면서 봉사활동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등 안전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과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2)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노인자원봉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0년도를 기하여 전체 인구의 7%를 초과하여 이미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고령시대의 심각한 국면이 연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의 빈곤문제, 의료문제, 소외와 학대문제 등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자원봉사 영역에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노인참여의 증가를 부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고령시대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시대적 의의를 찾는 데에 소홀하였고, 또한 선언적인 의미의 자원봉사에서의 노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도 인색하였다.

비록 정부(행정자치부) 입안으로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내용에서는 노인자원봉사참여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할지라도 그 시행령의 제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령시대를 감안한 노인자원봉사 영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원봉사추진 기관의 노인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에 대해 명시적 실천의 뒷받침이 기대되는 것이다.

3)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일반적인 문제점

이성록(2004; 14)의 ‘자원봉사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모형개발’ 자료에서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차원의 시민 참여의 필요

성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참여 욕구 증대가 맞물리면서 자원봉사활동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체계와 제도의 미흡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성의 문제이다. 자원봉사 활동에서 지속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지지체계의 미흡으로 6개월 이내에 60%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등 자원봉사자의 중도 탈락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동시에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도적 미흡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안전성의 문제이다. 자원봉사는 안전한 일이 아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어떠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매년 반복되는 재해재난 현장에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는 필수적이지만, 활용체계의 미흡 및 안전사고 대응체계의 미흡으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책이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진정성의 문제이다. 자원봉사는 위선이나 허위성이 아닌 진정성을 요구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재는, 미래의 사회를 이끌고 갈 주역으로서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되기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자원봉사의 자발성마저 습득하지 못하고 의무성에 머물러, 결국 학교를 졸업 하고 난 뒤에는 자원봉사에 오히려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 노인자원봉사참여의 문제점

(1) 노인인적자원관리의 소홀

지난 2004년 7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18차 IAVE 세계자원봉사자대회⁵⁾의 말미에서 소개된 대회의 성과를 통하여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면 ‘자원봉사 공동체는 아주 다양해서 모든 형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과 모든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⁵⁾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각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자원봉사정책에서 자칫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주문하며 모든 계층의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의 정신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가 갖는 이 같은 기본적인 철학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연구자는 노인인적관리 측면에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노인인적관리의 현황에 대하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강신욱의 연구(2005 : 4-15)를 보면 지난 20세기 후반에는 물질 자원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 국가는 물질 자원의 축적에 주력하였으나 21세기는 인적 자원의 형성이 국가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게 될 21세기 국가 운영의 핵심은 인적자원개발과 그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전체 인구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근로 능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적자원개발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데 고령인구의 비중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고령자가 75세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 수준 유지, 일자리 창출, 고령자에 대한 재교육 등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전 생애에 걸친 일관성 있는 교육시스템인 종합적 인적자원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또, 기영화(2005 : 40-49)의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인적자원개발은 고령층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민간부문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는 경영자총연

5) http://www.kcv.or.kr/iave/iave_03_18th.asp

합회에서 운영하는 고급인력정보센터와 인재은행 정도를 들 수 있을 들 수 있는데 주로 취업에 관련된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이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은 노동부 산하의 고령자인재은행,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워크넷 등이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취업알선센터(대한노인회 위탁), 서울시가 위탁·운영하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그리고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와 지역사회 노인복지관의 고령자취업을 들고 있다. 이외에 민간부문에서 실시되는 사업은 경영자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고급인력정보센터와 인재은행을 들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최근의 두 연구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요즘 들어 우리나라의 노인인적자원개발은 활발하게 이뤄진 듯 하나 현실을 살펴보면 매우 편협되고 근시안적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고령층 인적자원개발이 고령자들을 향구적이며 다양한 계층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 안목에 기초한 포괄적인 교육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주로 취업에 관련하여 사업성과에 국한된 단기적 훈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취업 일변도에 매달린 근시안적 노인인적자원개발 정책에서 진일보하여 취업뿐 아니라 노인의 자원봉사역량을 제고하는 데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욕구충족과 총체적 삶의 질을 겨냥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노인인적자원개발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전문직 출신을 포함 다양한 분야의 노인인적자원의 관리와 이의 활용이 손쉽게 이루어져 국가발전에 기여와 고령시대의 문제해결을 위한 단초로 삼게 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2) 노인전용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부재

‘업코리아’의 인터뷰(2003. 11)에서 밝힌 Jeremy Rifkin⁶⁾의 주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 등 새로운 NGO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인데 시장의 효율성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돈이 시장에서 서비스를 사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회적 통화’라는 대체통화를 만드는 것도 본 연구의 과정에서 자원봉사유인과 지속의 해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자원봉사를 통해 서로 맞교환 하되 여기에서 통화의 개념을 봉사를 한 시간 개념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미국, 영국, 일본에서 부분적으로 실험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봉사 은행제도 등 봉사시간의 인정과 이의 축적 그리고 그 유용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Jeremy Rifkin은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이런 대안을 ‘자선’의 개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인간의 기본적 심리는 하나를 받으면 주고 싶어 하여 이러한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한 시간의 맞교환 개념이 말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남을 위하는 마음’에 기초한 네트워크 정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발달하는 IT 기술로 기업간 그리고 국제차원에서 이런 대체통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며. 또 이런 방식으로 실업자와 노인들의 고용도 신규로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원봉사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가치를 통화가치로의 전환을 이루

6)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넘나들며 자본주의 체제 및 인간의 생활방식, 현대과학기술의 폐해 등을 날카롭게 비판해온 세계적인 행동주의 철학자이다. 펜실베이니아 대 와튼 스쿨에서 경제학을, 터프츠 대학의 플래처 법과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다. 그 후 워싱턴시의 경제동향연구재단(FOET)을 설립해 현재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전 세계 지도층 인사들과 정부 관료들의 자문역을 맡고 있으며 과학 기술의 변화가 경제, 노동,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활발히 집필 작업을 해왔다. 특히 1995년에 발표한 <노동의 종말>은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노동시간 삭감을 위한 사회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 밖에 <엔트로피>, <생명권정치학>, <바이오테크 시대>, <소유의 종말>, <육식의 종말> 등의 저서가 있다.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j=0&query=Jeremy+Rifkin>

게 하는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봉사와 혜택이 맞교환되는 균형을 이룸으로써 자원봉사는 평생 자기 몫으로의 인간권익의 상승효과 거둘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분야에도 관련프로그램의 확충이 아쉬운 현실이다.

봉사활동은 인간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출발해야 하며 심리적 만족의 효과가 기대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의 봉사활동참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질감 회복과 사회적 연대의식을 갖게 하는 사회통합의 유익을 가져오며 이러한 경우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을 유발하는 한편 이를 통한 사회공헌의 심리적 만족이 각자의 생활만족으로 연결되는 상승효과를 경험케 한다는 데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범수는 ‘즐기는 자원봉사 확산하려면’이라는 글에서(중앙일보, 2005.6) 미국 같은 자원봉사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환경도 자원봉사 활동이 처음부터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 오랜 기간 사회적인 제도나 권유에 의해 점차적으로 참여가 이뤄져 왔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자원봉사제도나 기구를 만들어 국민에게 참여를 권유해 왔다고 한다. 그는 자원봉사 활동을 권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다양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와 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사회적 제도적 인센티브의 보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노인만의 특수성을 감안한 노인전용 자원봉사의 관리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참여노인이 활동내용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자원봉사의 가치와 철학을 내면화 할 수 있는 노인전용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3) 노인자원봉사지원체계의 미흡

노인자원봉사 영역의 확대와 노인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을 통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

인의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통합기구 등 노인자원봉사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초유의 급박한 추세로 고령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으로 노인들의 자원봉사참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노인 자원봉사에 대해서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 노인들의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봉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 대한 사전사후 교육과 이들에 대한 적정의 보상을 시행하는 우리 실정에 맞는 노인 자원봉사 지원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6. 노인 자원봉사참여의 영향요인

노인 자원봉사참여의 영향요인으로 참여 동기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인간의 모든 활동의 이면에는 최초로 동기요인의 작용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는데 자원봉사 역시 다양한 참여 동기가 있게 된다.

Chambre(1984)는 그의 분석에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는 활동이론에서 제시된 것 보다 더 복잡한 설명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모델로 제시하였다.

모델1 : 취업유무상태 ; Volunteering(labor force status)

모델2 : 결혼상태 ; Volunteering(marital status)

모델3 : 취업상태와 결혼상태 ; Volunteering(labor force status & marital status)

모델4 : 연령, 성, 교육, 가정수입 ; Volunteering(age, gender, education, and household income)

모델5 : 취업상태, 결혼상태, 연령, 성, 교육, 가정수입 ;
Volunteering(labol force status, marital status, age, gender,
education, and household income)

위의 5가지 모델들 중 처음의 모델1-모델3은 취업유무와 결혼상태를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활동 이론에 기초한 것이며, 모델4는 연령, 성, 교육정도, 가정수입 등의 경험학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 변수들을 사용한 것이고, 모델5는 활동이론의 변수들과 모델4의 변수들을 결합하여 취업유무와 결혼상태, 연령, 성, 교육, 가정 수입 등의 복합적인 변수들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김영모(1990: 11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 연령, 경제상태, 출생지, 전 직업에 따라 자원봉사의 경험율과 희망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 경험율은 남자가 14.8%로써 여자(6.2%)의 2배를 넘어 남자가 여자보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많았다. 조사대상별로 나타난 특징은 생보노인의 자원봉사 희망률이 9.4%로 나타나 이들이 자원봉사에 대해 가장 소극적·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지별로는 도시지역출신자일수록, 전 직업별로 보면 전문직과 관리·사무직 출신 노인들의 경험율이 전체평균의 2배를 넘었고 이들의 희망을 또한 다른 노인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05년 우리나라 행정자치부에서 연구용역(사단법인 볼런티어21)으로 수행한 2004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 등에 대한 보고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인식하는 자원봉사의 동기는 친구 또는 동료의 요청과 의미 있는 여가활동이 각각 39%, 사회문제해결의 도움 33.8% 순으로 나타났으며 '02년도의 경우 이기적인 동기와 주변의 권유로 인한 동기가 더 중요함을 보여준 반면, '05년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가 여가활동의 하나로 자리매

김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볼런티어21, 2005: 20-21).

제3절 노인의 생활만족도

1. 노인 생활만족도의 개념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을 중시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나뉘어진다. 삶의 만족도의 인지적 차원은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를 자신의 기대, 욕구, 희망, 또는 다른 준거 집단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 정서적 차원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이 인지적으로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정서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더욱 많이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권중돈 외, 2000: 61-67, 재인용)

삶의 만족도의 개념은 심리적 안녕, 행복, 사기의 개념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시간이라는 잣대를 적용하였을 때 만족은 과거, 행복은 현재, 사기는 미래와 관련된 개념이다. 그리고 심리적 안녕상태의 지속성이라는 잣대를 적용하여 보면, 만족과 사기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된 인지상태인 반면 행복은 일시적인 정서 상태와 관련된 개념이다. 생활만족도라는 개념은 Neugarten의 2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 지표(Life 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한 후부터 일반화되었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권중돈 외, 2000: 61, 재인용)

Cavan과 그의 동료들은 생활만족이란 개인이 자신의 현재 지위와 활동에 대해 갖는 만족감이라고 정의한 반면, Neugarten(1964)과 그의 동료들은

Cavan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갖는 만족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살아온 생활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감이라고 정의하였으며(한인섭, 1987: 17), Schalock(1996)은 생활전반에 걸쳐 느끼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판단 혹은 자신의 기대에 대한 충족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즉,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주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변화에 잘 대응해 나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 할 수 있다. 결국 노인의 생활만족도란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간의 합치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서 그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은 물론 생활역사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인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한 개인의 복합적인 감정을 알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박충선, 1998: 34).

2. 노인 생활만족도의 이론

1) 은퇴 이론

이 이론은 노인의 생활적응을 나타내는 생활만족도를 노인의 역할 및 활동과의 관계에 의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Cumming과 Henry는 노령화란 노인이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이탈 또는 유리되는 상호적 은퇴과정으로써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라 한다. 즉, 노년기에는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역할수행이나 자아투입의 양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았는데, 이는 노화에 따른 사회적 활동의 축소, 그리고 배우자의 죽음 등에 기인하여 전

반적으로 가정적, 사회적 역할이 감소한다는 것이다(정광섭, 2001: 11). 또한 노인들은 노화되면서 활동수준이 낮아지고, 좀 더 수동적인 역할을 찾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도 감소하고, 자신의 내면적 삶에 더 몰두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필연적이며 이러한 사회적 은퇴과정이 노인들에게 만족감을 높여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은퇴이론은 다음에 다룰 활동이론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노령기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과 만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

2) 활동 이론

활동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와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 또는 생활만족도는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생물학적 측면과 건강의 불가피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노인은 근본적으로 중년기와 다름없는 심리적 및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노인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하고 집단 활동과 지역사회에 일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노년기의 특성으로 나타난 사회적 상호 작용의 감소, 예를 들어 직업의 상실은 노인을 고립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이 노후에 생활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존 활동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노후에 포기해야만 하는 기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활동을 찾아야만 한다. 즉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화에 의하여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상실에 의하여 감소되며 사회적 활동과 사회에서의 상호 대인적 관계가 생활만족도와 사기를 유지시켜준다는 것이다.

이 활동이론에 의하면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또한 친밀한 활동을 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이 유지되므로 노령기에도 많은 사회적 관계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퇴직으로 인하여 상실된 역할활동을 대치할 만한 다른 활동에의 참여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인성 이론

앞에서 논의한 활동이론과 은퇴이론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인성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은 생물학적 개체로 태어나서 사회적 관습과 행동양식을 배우고 익히면서 성장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장과정이 인격형성의 과정으로서, 성격특성은 인간개체가 주위의 상황으로부터 끊임없는 작용을 받아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을 가하면서 하나의 통일체를 지속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노화는 노화에 따라 특별히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가치관, 자아개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노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환경과 내적과정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변화하지 않으며 오랫동안 세워진 욕구와 조화를 이루어 환경과의 계속적인 선택을 통하여 성격 유형이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학술적 연구에서도 노인들의 성격변화는 연령증가에 따라 개인적인 특성, 특히 행동특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옴으로 인해 노년에서의 적응양식은 물론 생활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한다.

4) 교환 이론

교환이론에 의하면 개인이나 집단은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게 무엇을 주

는 대신 다른 보상을 얻으려고 하거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특히 이 이론은 쌍방간에 교환의 행위가 반복이 되면 개인이나 집단간의 사회적 관계는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교환이 균형을 이루고 자신과 상대방의 보상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그 관계는 장시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으며, 교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이 없으면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 활동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상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노력이 강화됨으로써 인간간의 상호 작용이 반복된다. 여기에 상호작용의 매개체로서 교환자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노인들은 노령화됨에 따라 젊은 세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교환자원의 불충분, 보상물의 가치 저하 등으로 교환관계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며, 교환상대편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교환자원의 가치 저하는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권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권력의 상대적 약화는 교환관계에서의 교환조건의 열세를 초래하여 노인이 결국은 개인 및 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노인이 생활전반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은 저하된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는 교환자원을 보강하는 것이다.

3. 노인 생활만족도의 영향 요인

노인이 과연 어떤 환경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을 검증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대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가족형태, 종교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여가활동 참가 역시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밝힌 모창배(1992)의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이 얼마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여가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 추정결과 활동·참여형 여가와 휴양형 여가는 여가소비를 증가시킬수록 생활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가형여가가 생활만족도에 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반면 교양·감상형 여가는 여가소비를 증가시킬수록 생활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여가의 선택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때, 좀더 능동적이고 참여적이고 적극적인 여가유형을 가질수록 생활만족도는 증가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노인생활만족도와 관련한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특성

'(1) 성별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심리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학적 측면에서 상이한 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평등과 불평등의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성격과 사회적 역할의 차이,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지각의 차이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차이 등에 많은 논의가 거듭되고 있다.

성별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를 보면, 서로가 유의한 관련이 없다는 결과(Liang, 1982; Collette, 1884; 양광자, 1990)를 보고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결과(Markides, 1979; 홍순혜, 1984)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

전반적으로 선행연구 결과들은 생활만족도와 성별과의 관계에 대한 일관

성 있는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해 생활만족도와 성별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연령

Krammer(1981: 49)는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나 사회모임, 결혼이나 친구들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지만 건강이나 가족, 취미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서병숙(1994: 34), 송정선(1996: 81)은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장현·이철우(1993: 139-146)의 연구결과 에서는 70대 노인보다 80대 연령의 노인이 미래생활에 만족할 확률이 더 크다고 밝히고 있다.

Cutler(1979)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종교, 사회모임, 결혼, 친구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반면, 건강, 취미생활, 가족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노년기에 있는 노인일지라도 만족의 대상이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연령이 직접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생활만족도와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보면, 연령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Medley, 1976; 김재인, 1987; 정동락, 1987)와 함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박충선, 1990)도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연령은 그 자체가 노년기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같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연령에 사회적 관계나 건강 상태, 결혼 형태, 의사결정권 등이 다르고, 또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3)건강

건강은 노인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예시해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Quin, 1983: 57-73)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노인은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대부분의 연구에서 입증하고 있다(Davis 등, 1992: 401-406; 조옥희·신효식, 1991: 115-130; 주성수·윤숙례, 1993: 55-62).

많은 연구들에서 노인의 신체적 기능의 감퇴는 제반환경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하므로 노후의 건강상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건강한 노일수록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생활에 만족하며, 건강한 노인이 사회적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활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4) 배우자 상황

노인에게 있어 배우자의 상실은 심각한 절망과 고독을 수반하게 된다고 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사망률이나 자살률은 더 낮으며 정신질환도 더 적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Riley, 1993: 91).

또 송정선(1996: 38-46)은 노인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는 경제적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배우자를 상실함으로써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배우자의 상실 그 자체보다도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특히 경제적인 지위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소득의 근원인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들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노년기란 자신의 은퇴와 더불어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생활 사건이 되는 시기로서 그 어느 가족주기 단계에서 보다 부부관계가 가장 중심적이고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

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에 있어서 사회 심리적 적응도나 행복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배우자 상실은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남자 노인보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위협과 아내의 역할 상실,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는 반대로 남자노인이 사회생활은 다양하지만, 긴밀한 친구관계가 적고 같은 처지에 있는 남자노인이 드물어 배우자 사망은 남자노인에게 더욱 타격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상실이 가져다주는 낮은 생활만족도는 배우자 상실 그 자체보다는 배우자를 상실함으로써 수반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 때문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5) 가족구성원

Johnson(1978: 69)은 노인에게 있어 원만한 가족관계는 노인의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처기술을 육성하도록 해준다고 하였다. 노인의 전체 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여부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노인에게 있어 원만한 가족관계는 노인의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처 기술을 조성해 준다는 것이다.

Quinn(1983: 57-73)은 노인과 그 자녀의 결속이 강할수록 노인의 복지감은 향상된다고 하며 노년기의 부모는 사회활동이 감소함으로써 자녀와의 더욱 깊은 애정적 유대관계를 이루고자 하므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가치관이 일치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자녀와의 관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해 형성되어진 가족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생활하며 계속적인 도움을 기대하게 되므로 다른 어느 집단에서 보다 가족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6) 교육수준

정미자(1997: 88)는 고졸이상의 노인들이 그 이하의 교육수준을 나타낸 노인들보다 생활에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생활에 불만족 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은 소득과 함께 사회계급을 결정하는 변수로 고려된다. 이는 개인에게서 박탈할 수 없는 것이고 측정가능한 지표로서 자주성을 확립시키는 역할을 한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교육수준과 생활만족도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태현, 1986: 181-200; 김기태·박봉길, 2000: 153-158; Heady & Wearing, 1992; Krause & Borawski-Clark, 1995: 498-598). 장현과 이철우(1996)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과 현재 생활만족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고, 미래 생활만족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불만족할 확률이 클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즉, 노년기에 있어서 교육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정적인 관계는 교육수준과 경제상태가 일반적으로 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부적인 관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7) 생활수준

노인의 생활만족의 요인으로 경제적인 만족요인인 생활수준에 대한 면은 노년기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과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노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 뿐 아니라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제적 안정과 보장이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고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의 용돈사용량과 용돈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장인협·최성재, 1997: 203~208).

2) 사회 참여

(1) 종교

김수연(1987: 25)은 종교생활에의 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참여도가 높고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시킨다고 하며 종교는 노인의 대사회적 상실감을 줄여주며, 생활의 중요성과 유의미성을 인정하여 자신의 잠재적 가치를 개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또 이우복(1993: 13)은 종교생활을 하는 노인이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았다.

노인에게 있어 종교는 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의미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노인에게 있어 종교생활은 자신이나 배우자, 친구의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위안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노인의 상실감을 줄여주며, 생활의 중요성과 유의미성을 인정하여 자신의 잠재적 가치를 개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종교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진 노인들이 종교를 갖지 않은 노인들보다 생활 적응력이 높고, 소외감도 덜 느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즉, 종교 활동은 개인에게 지역사회의 소속감 및 공동체의식을 가지게 하여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노년기의 상실감을 인정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게 된다(고승덕, 1995: 181-200; 김태현, 1986; Oscar, 1982: 48-58; Sullivan, 1981: 310-439). 이는 노년기 사회 활동 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맥락에서 종교적인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종교유무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숙, 1987: 30-46; 박충선, 1990: 30-46; 조옥희·신효식, 1991: 115-130).

(2) 사회관계

박재간(1983: 307-318)은 노인에게 있어서 개인적 활동보다는 집단적 활동이 노인의 고독감을 덜어준다고 보았다. 노인의 사회관계는 노화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정적인 생활 국면을 보완해주고 사회적인 능력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안정감을 부여해준다. 사회관계중 친구의 존재는 노인에게 있어서 절박한 사회적 상실에 대한 역할 모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역할을 상실해 가는 노인들은 친구와의 결속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노인의 사회참여도 자발적인 사회참여가 더욱 바람직하며 참여동기에 있어서도 보다 새로운 삶을 위한 창조적 동기에 의할 때 만족감이 더욱 증대된다고 하며, 여가활동 내용에 따라 심리적인 안정감이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자원봉사활동이나 사교모임, 종교모임에 참여하며 여가를 보내는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제4절 선행연구

1. 자원봉사참여노인과 생활만족도

Kalish(1975: 69)는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봉사활동의 만족도와 봉사활동의 적극성 및 봉사활동 존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독립변인은 활용하고 있는데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인종, 경제적 수준, 고용 상태, 종교, 과거의 자원봉사 경험, 타 기관에서의 활동여부, 가족의 자원봉사활동 여부, 자원봉사 수혜 여부 등을 들고 있다. 이 독립변인 중에서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인종, 타 기관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여부, 가족의 자원봉사활동 여부, 자원봉사 수혜여부 등이 봉사활동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미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선행연구들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였는바, 여기에서는 이들 연구들을 종합하고, 노인자원봉사활동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밝혀진 선행연구들 중 가장 관련이 깊은 연구를 중심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수행된 노인자원봉사활동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연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①자원봉사활동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②대인관계 정도에 따른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③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 및 실태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연구, ④개인특성 변인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1) 자원봉사참여 동기 및 참여실태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 및 실태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연구에서는 참여동기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연구와 참여수준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Moore(1985: 74-88)는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는데 이타적 측면과 이기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첫째의 측면은 자원봉사자들이 이타주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타주의는 다른 사람의 만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그 자체에서 자원봉사자 개개인이 만족을 얻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 둘째는 이기적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단순한 하루 일과에서 벗어나 특별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사회적 접촉의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필례(2000)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동기에 있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서’와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감 때문’이라고 응답한 노인들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고유경(1997)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자의 자발성이 높은 성취욕구와 책임을 불러 옴으로써 생활만족도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김민정(1998)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동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정도와 경력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자원봉사활동 종류에 따라서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원봉사활동비를 ‘받지 않는 노인’이 ‘받는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참여동기가 자발적일 때,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시사하였다.

자원봉사 참여 동기는 참여 태도와 결부되며, 곧 생활만족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선행연구서도 보는 바와 같이 자발적인 참여나 참여시간의 정도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강화를 가져오며, 그 과정에서 삶의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원봉사 참여동기나, 봉사참여시간은 생활만족도와 관련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2) 대인지지와 생활만족도

대인지지관계 연구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관의 직원 및 동료 자원봉사자와의 관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김상욱(2000)의 연구에서는

동료자원봉사자와의 관계, 담당직원과의 관계가 좋을 때, 관계가 좋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밝혔다. 홍승혜(1995)의 연구에서는 동료자원봉사자와의 관계가 좋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윤영호(1995)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이 긍정적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 다양한 연구들에서 자원봉사 참여 기관에서의 대인관계 및 가족과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주변으로부터 자신의 일에 대해 인정을 받고, 긍정적인 지지를 통한 내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자원봉사 참여 노인의 주변과의 관계,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지지 수준이 생활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3) 개인특성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조휘일(1990: 49)은 자원봉사자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른 봉사활동의 양상이나 봉사활동 후에 느끼는 감정도 다양하다고 한다. 이는 자원봉사자 개인별 차이가 봉사활동 결과에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이들 개인적 요인들 가운데는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서 변모하는 것도 있고, 일생을 통해서 변화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 특성 요인들은 태도, 지각, 경험뿐만 아니라 욕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훈련모형과 기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를 변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지식과 노력 및 경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개인적 특성들은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게 될 때 선발, 배치 과정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는 것이다.

개인특성 변인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자 개인별 차

이가 봉사활동 결과인 생활만족도에 차이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가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개인특성이 생활만족도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Black & Dinitto(1996: 72)는 남녀 성 차이가 자원봉사활동 양상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남성과 여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취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자원봉사활동의 만족에 남녀 성별의 차이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정희(1994: 66)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직업,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자원봉사 만족도에 차이를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들 모든 변인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보고하여 자원봉사 만족도가 아닌 생활만족도와도 관련이 없음을 시사 하였다.

또한 홍승혜(1995: 72)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교, 종교, 직업, 소득 등의 개인적 특성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종교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개인특성 변인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연구에서는 국가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를 보임으로써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생활만족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차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있으나,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는 개인차 변인이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깊은 변인으로 보기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4) 자원봉사활동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최근 들어 노인들의 자립의식이 증대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들도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하여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노인 은 연령상 노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지위와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에 충실하며 활동적이고 참여의식도 높다(강성구, 2004: 29).

노인에게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단체나 지역사회에서 보상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된다. 또한 노인에게는 자신뿐 아니라 남을 위해 봉사하거나 헌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 자아를 성취하고 스스로 만족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은 지역사회활동에의 참여, 의료기관, 복지관, 경로당, 종교단체 등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상실된 노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상받고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장인협·최성재, 1997: 255-479, 재인용)

앞으로의 노인들은 은퇴와 함께 그 동안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했던 일들은 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보람 있게 계획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또 다른 삶을 영위하려하고, 다가올 시간들을 보상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길 원할 것이다. 노인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몸이 불편한 노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김춘성, 1994: 57, 재인용)

자원봉사활동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연구는 일반노인과 자원봉사 참여 노인 간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하는 연구라는 점이 특징이다. 윤영호(1995)의 연구는 자원봉사활동 노인과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였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김필례(2000)의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일반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숙진(2001)은 자원봉사 참여 노인과 비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 집단간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하

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이나 참여 경험이 있는 노인이 비참여 노인이나 참여경험이 없는 노인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나 참여 경험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

2. 선행연구의 시사점

앞에서는 선행 연구에 대한 요약을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미 언급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건강보호문제, 여가문제, 고독과 소외문제, 주거문제, 자아실현문제 등 다양한 노인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들 문제 가운데 최근 노인여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인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노인의 특성 및 노인의 욕구를 바탕으로 하기보다, 드러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여러 단체들의 대책이나 방안 역시 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의 여가활동 가운데에서 자원봉사는 경제적 손실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써 인생의 보람을 경험케 하고, 노인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노인 여가활동의 한 분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인 행위으로써, 그 시작부터 동기요인이 작용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실제 생활만족도가 어떠한

지를 밝히고, 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인가를 탐색하는 일은 노인의 특성이나 욕구를 확인하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앞서 제4절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노인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변인들을 살펴보았는데,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①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건강, 배우자 유무, 가족관계, 교육수준), ②사회참여(종교, 사회관계) 등 2개 영역의 변인들이 노인 자원봉사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참여 노인의 생활만족도 관련 요인으로 자원봉사활동 여부, 대인관계(가족, 친구 관계 등) 측면, 자원봉사 참여동기 및 실태, 자원봉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참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한 보다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관련 요인과, 생활만족도 관련 요인을 통합하여 4개의 세부 요인으로 유목화 하였다. 이들 유목은 ①참여동기요인(심리적 측면, 생활 측면, 외부기대 측면, 사회적자극 측면, 사회보상측면), ②대인지지요인(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③참여실태요인(참여경로, 참여기간, 봉사활동 투자 시간, 참여 봉사활동 형태, 활동인식), ④개인적 특성요인(성별, 나이, 학력, 종교, 배우자 상황, 가족 구성원 형태, 경제수준) 등이다.

제3장 연구조사 방법

제1절 연구조사의 설계

1. 연구조사의 모형

본 연구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고 생활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서두에서 밝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분석의 틀을 구성함에 있어서 생활만족도라는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변인인 독립변인의 구성을 선행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제 요인을 추출하여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제작한 것으로써 크게 4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첫째의 독립변인으로 참여동기 변인을 들었는데 모든 활동의 이면에는 최초로 동기요인의 작용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내부 요인으로는 심리적인 요인, 생활적인 요인, 외부기대요인, 사회적 자극요인, 사회적 보상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의 독립변인으로는 대인지지변인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은 주로 대인관계의 작용으로 보아 대인적 지지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부 요인으로는 가족지지 요인, 친구지지요인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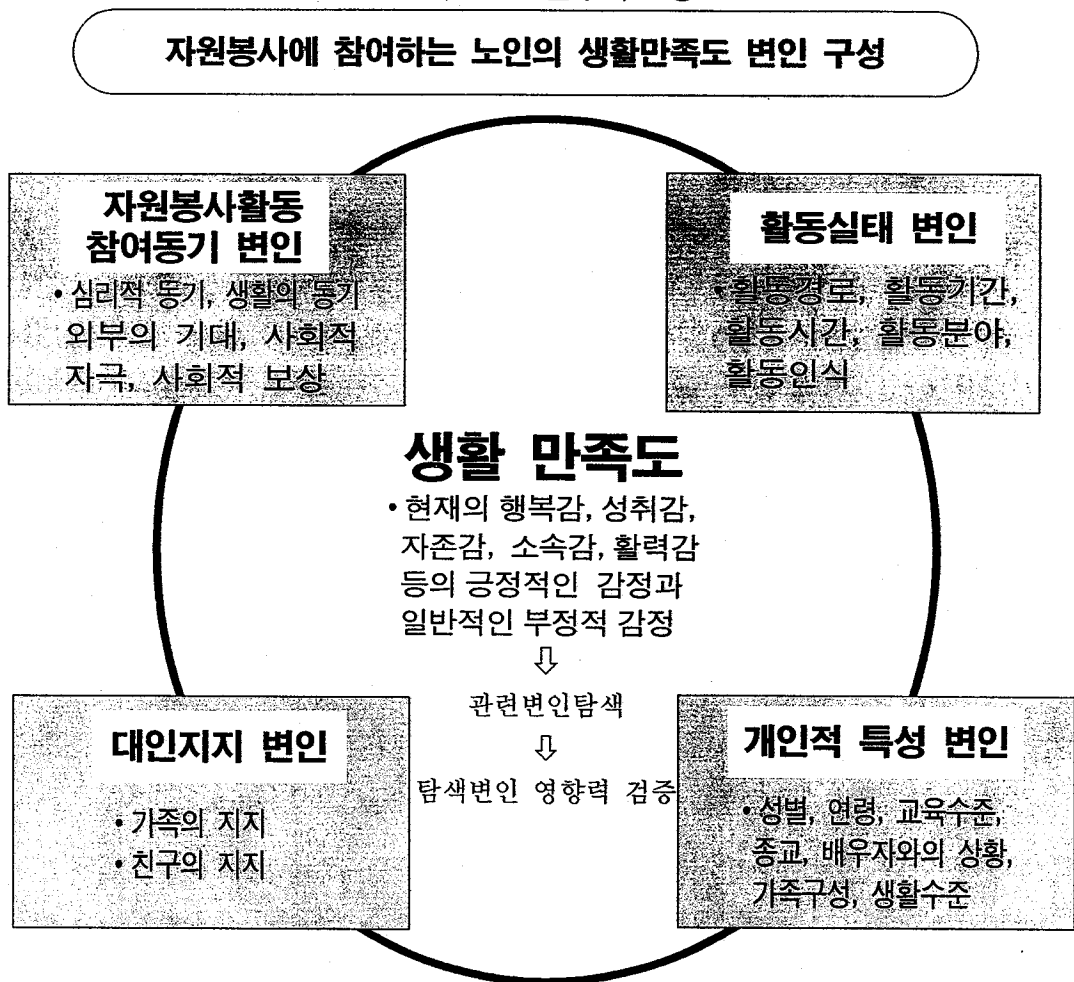
세 번째의 독립변인으로는 활동실태변인을 들었는데 실제 자원봉사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요인이 되겠다. 세부적인 내부 요인으로는 활동경로,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분야, 활동인식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네 번째의 독립변인으로는 개인적 특성변인으로 내부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배우자와의 상황, 가족구성, 생활수준요인으로 구성하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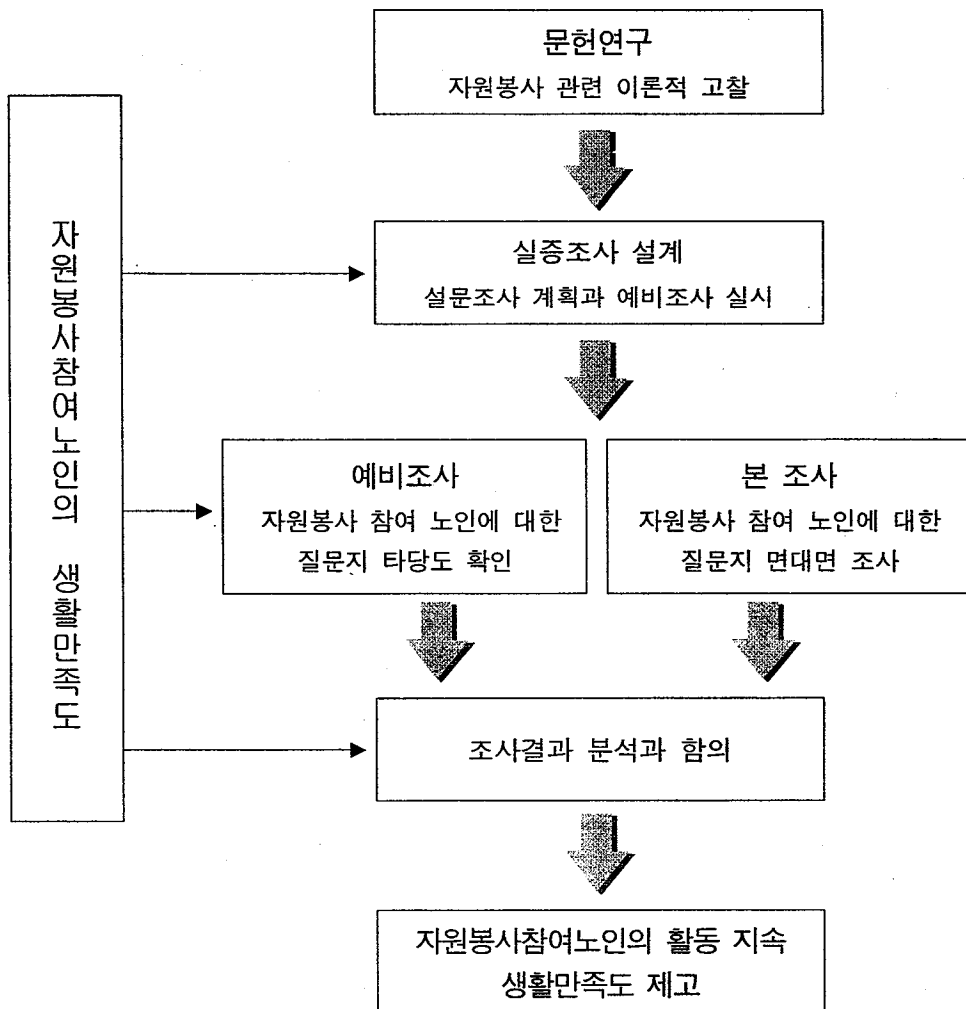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①참여동기변인 ②대인지지변인 ③활동실태 변인 ④개인적 특성변인 등 4개 범주의 영향분석을 함에 있어서 우선 이들 변인과 자원봉사활동 참여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t검증, F검증, 상관분석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그다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인들이 생활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한다. 이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3-1>와 같다.

<그림3-1> 연구의 모형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진행의 틀을 <그림3-2> 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3-2> 연구진행의 틀



2. 연구조사문제

본 연구는 서론에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의 자원봉사 참여의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는 한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조사문제 1]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참여동기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노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다양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인 면, 생활적인 면, 외부 기대면, 사회적 자극면, 사회적 보상면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들 변인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조사문제 2]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대인지지 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현재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주변의 시선은 그 일에 대한 만족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만족과도 관련이 깊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대인지지 수준을 가족의 지지 수준과, 친구의 지지 수준으로 나누어 보고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조사문제 3]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활동실태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의 일의 수준이 어떠냐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활동경로,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부문(분

야), 활동인식 등 5개 하위 영역에 의해 활동실태를 확인하고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조사문제 4]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생활만족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봉사활동 참여자의 성별, 연령, 학력, 종교, 배우자상황, 가족동거, 소득 등 7개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조사문제 5]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참여동기, 대인지지, 활동실태, 개인적 특성 등의 변인은 생활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앞서 살펴본 4가지 연구문제에서는 자원봉사 참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관련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조사 가설

각 연구문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조사문제 1]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참여동기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1.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심리적 동기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생활적 동기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3.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외부 기대 동기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4.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사회적 자극 동기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5.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사회적 보상 동기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6.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참여동기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조사문제 2]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대인지지 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1.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가족 지지 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2.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친구 지지 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3.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대인지지 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조사문제 3]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활동상태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3-1.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활동 경로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2.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활동기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3.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활동시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4.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활동부문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5.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활동인식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조사문제 4]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생활만족도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4-1.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성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2.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연령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3.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학력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4.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종교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5.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배우자상황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6.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동거 가족의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7.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조사문제 5]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의 참여동기, 대인지지, 활동실태, 개인적 특성 등의 변인은 생활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제2절 연구조사 대상 및 도구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며 자원봉사에 현재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비롯하여 서울의 주요 노인 종합복지관과 경기북부지역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서울시내 주요 노인자원봉사활동터전에서 표집 하였다. 질문지는 수도권의 주요 노인종합복지관 8개소에 360매를 배포하여 345매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자료선별(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분석에 활용한 자료로 최종 표집 대상은 총 339명(남자 169명, 여자 167명)이었으며, 구체적인 표집 현황은 다음 <표3-1>과 같다.

<표3-1> 표집현황

구 분		빈 도	%
성 별	남 자	169	49.9
	여 자	167	49.3
	무응답	3	0.9
	계	339	100.0
연 령	60-69세	131	38.6
	70-79세	172	50.7
	80세 이상	32	9.4
	무응답	4	1.3
	계	339	100.0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변인들에 대한 조사도구의 제작은 선행연구 및 문헌연구를 통하여 변인들을 확보하였고, 각 변인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문항들을 충분히 확보한 후 설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전문가를 통해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검증받은 후,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 4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에서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생활만족도는 $\alpha = 0.86$, 참여동기는 $\alpha = 0.63$, 대인지지는 $\alpha = 0.82$ 로 나타났다. 이에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질문내용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1) 참여동기 조사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묻는 참여동기 조사는 Likert형 5점 척도로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1점, '고려하지 않았다'는 2점, '그저 그렇다'는 3점, '대체로 고려하였다'는 4점, '매우 고려하였다'는 5점으로 주어 측정된 점수를 합산하였다. 결과적으로 참여동기 요인의 총 점수의 범위는 15점-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참여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검사 전체의 신뢰도는 $\alpha = .850$ 이었으며, 하위영역 별로는 '심리적 측면'($\alpha = .514$), '생활적 측면'($\alpha = .688$), '외부 기대 측면'($\alpha = .674$), '사회적 자극 측면'($\alpha = .622$), '사회적 보상 측면'($\alpha = .663$)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동기 검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2) 대인지지 조사

대인지지 조사의 측정방법은 Likert형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그저 그렇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주어 측정된 점수를 합산하였다. 대인지지 검사는 총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위 영역으로 가족지지 4문항, 친구 지지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가족지지’의 총 점수 범위는 4점-20점이며, ‘친구지지’의 총 점수 범위는 4점-20점이다. 이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활동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검사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전체는 $\alpha=.881$ 이었고, ‘가족지지’($\alpha=.826$), ‘친구지지’($\alpha=.821$)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활동실태 조사

본 연구에서의 활동실태 요인은 활동경로, 활동기간, 활동 시간, 활동분야, 활동인식으로 구분하였다.

활동인식 측정방법은 Likert형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그저 그렇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주어 측정된 점수를 합산하였다. 총 문항은 12문항으로 점수의 범위는 12점-6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활동인식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활동인식은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검증결과 $\alpha=.758$ 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개인적 특성 조사

본 연구에서의 개인적 특성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배우자와

의 상황, 가족구성원, 생활수준 면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5) 생활만족도 조사

생활만족도 조사는 Likert형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그저 그렇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주어 측정된 점수를 합산하였다. 총 문항은 10문항으로 점수의 범위는 10~5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alpha=.809$ 로 신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자원봉사에 현재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2005년 9월에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수도권 내의 주요 노인 종합복지관에 사전 설문 협조여부를 문의하여 협조가 용이한 서울노인복지센터 외 시내 노인종합복지관 6곳과 경기북부지역의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서울시내 주요 노인자원봉사활동터전에서 표집 하였다.

본 조사는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보름 기간에 걸쳐 연구자 및 질문지에 대한 사전 교육받은 자원봉사 도우미 6명이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이 노인인 관계로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 일일이 내용을 설명하며 조사를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수반되었다. 질문지는 사전

설문조사 협조에 응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비롯하여 서울시내 각 구에 위치한 노인 종합복지관 6곳에 260부, 일산 노인 종합복지관에 50부, 시내 주요 노인자원봉사활동 터전에 50부를 배부하여 총 360부를 가지고 개별 면담을 시도하여 회수된 질문지는 모두 352부였다. 이중에서 자료선별을 하였는데 응답자의 실수로 기재누락, 무성의한 답변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질문지 13부를 제외하고 통계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모두 339부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질문지의 배포 및 회수율은 <표 3-2>와 같다.

<표 3-2> 질문지 배포 및 회수율

설문배포 및 회수처	배포 수	회수 수	회수율	위탁기관 및 종교 상황
서울노인복지센터	50	46	92.0	불 교
성동노인종합복지관	50	48	96.0	천주교
은평노인종합복지관	50	46	92.0	불 교
종량노인종합복지관	50	50	100.0	기독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20	19	95.0	불 교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20	17	85.0	기독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20	18	90.0	없 음
일산노인종합복지관	50	49	98.0	불 교
서울시내 주요 자원봉사현장 (고궁, 종묘, 청계천, 탑골공원)	50	46	92.0	
계	360	339	94.2	

2. 조사결과와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생활만족도 수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다. 그리고 생활만족도와 주요 독립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독립변인들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이 참여만족도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예측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 및 가설에 따른 분석방법은 <표 3-3>, <표 3-4>, <표 3-5>, <표 3-6>, <표 3-7>과 같다.

<표 3-3> 연구문제 1의 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구분	가 설	분석방법
1-1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심리적 동기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관분석 ANOVA
1-2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생활적 동기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관분석, ANOVA
1-3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외부 기대 동기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관분석, ANOVA
1-4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사회적 자극 동기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관분석, ANOVA
1-5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사회적 보상 동기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관분석, ANOVA
1-6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참여동기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관분석, ANOVA

<표 3-4> 연구문제 2의 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구분	가 설	분석방법
2-1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가족 지지 수준에 따라 생활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관분석
2-2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친구 지지 수준에 따라 생활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관분석
2-3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대인 지지 수준에 따라 생활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관분석

<표 3-5> 연구문제 3의 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구분	가 설	분석방법
3-1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활동경로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OVA
3-2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활동기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OVA
3-3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활동시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OVA
3-4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활동부문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OVA
3-5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활동인식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t검증

<표 3-6> 연구문제 4의 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구분	가 설	분석방법
4-1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성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t검증
4-2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연령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OVA
4-3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학력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OVA
4-4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종교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OVA
4-5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배우자상황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OVA
4-6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동거가족의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OVA
4-7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OVA

<표 3-7> 연구문제 5의 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구분	가 설	분석방법
연구 문제 5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참여동기, 대인지지, 활동실태, 개인적 특성 등의 변인은 생활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다중회귀 분석

제4장 연구조사 결과의 분석

제1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비교

(1) 성별과 연령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은 <표 4-1>과 같다. 전체 339명 가운데 성별로는 남자 169명, 여자 167명으로 비슷하였다.

연령별로는 70세에서 79세 사이가 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60세에서 69세 사이는 13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80세 이상은 32명이었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

특성변수	구분	빈도(N)	백분율(%)
성 별	남 자	169	49.9
	여 자	167	49.3
	무 응 답	3	.9
	계	339	100.0
연 령	60세 이상-69세 이하	131	38.6
	70세 이상-79세 이하	172	50.7
	80세 이상	32	9.4
	무 응 답	4	1.3
	계	339	100.0

한편 2005년 10월 통계청 발표 우리나라 「2005년 고령자 통계」에서 성별 고령인구의 비율은 <표 4-2>와 같이 65세 이상 인구는 4,383천명으로 전체 인구 중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7.2%, 여자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9%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5b: 60-61, 63).

<표 4-2> 「2005년 고령자 통계」상의 성별 고령인구의 비율

(단위 : 천명, %, 여자 100명당)

	2000	2004	2005
65세 이상	3,395	4,182	4,383
구성비	7.2	8.7	9.1
성 비	62.0	66.1	67.1
< 남 자 >	1,300	1,665	1,760
구성비	5.5	6.9	7.2
< 여 자 >	2,095	2,517	2,623
구성비	9.0	10.6	10.9

※ 자료 : 통계청, 「2005년 장래인구특별추계」

(2) 교육수준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교육수준은 <표 4-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03명(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졸업이 73명(21.5%)이었다. 그다음으로 대졸이상이 70명(20.6%), 중학교 58명(17.1%), 무학이 25명(7.4%)이며 서당을 다닌 사람도 7명(2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교육수준이 전국통계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표 4-3>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특성변수	구분	빈도(N)	백분율(%)
교육수준	무 학	25	7.4
	서 당	7	2.1
	초 등 학 교	73	21.5
	중 학 교	58	17.1
	고 등 학 교	103	30.4
	대 졸 이 상	70	20.6
	무 응 답	3	.9
	계	339	100.0

「2005년 고령자 통계」에서 살펴본 65세 이상 교육수준은 <표 4-4>와 같이 2000년 65세 이상 인구 중 55.7%가 정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44.3%가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정규교육 비율은 77.0%로 여자 42.6%보다 34.4%p 높았음(통계청, 2005: 142).

<표 4-4> 「2005년 고령자 통계」 상의 고령자 교육수준

(단위 : 천명, %)

	계		교육정도별				무 학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1990	2,162	36.3	25.9	4.9	3.3	2.2	63.7
남 자	811	55.3	34.3	9.5	6.3	5.2	44.7
여 자	1,352	25.0	20.9	2.1	1.5	0.5	75.0
2000	3,372	55.7	33.8	8.4	8.0	5.4	44.3
남 자	1,287	77.0	36.2	14.0	14.4	12.3	23.0
여 자	2,084	42.6	32.4	4.9	4.1	1.2	57.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3) 종교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종교는 <표 4-5>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종교에 있어서는 불교가 107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와 천주교가 각각 76명(22.4%), 74명(21.8%)으로 거의 비슷하였으며, 무교가 54명(15.9%), 민족종교는 8명(2.4%), 기타 20명(5.9%)으로 확인되었다.⁷⁾

<표 4-5> 조사대상자의 종교

특성변수		빈도(N)	백분율(%)
종교	불교	107	31.6
	천주교	74	21.8
	기독교	76	22.4
	민족종교	8	2.4
	무교	54	15.9
	기타	20	5.9
	계	339	100.0

「2004년 고령자 통계」에서 살펴본 65세 이상 종교는 <표 4-6>와 같이 2003년 65세 이상 인구 중 종교인구 비율은 63.2%이고, 이 중 불교는 52.3%, 기독교31.4%, 천주교 12.2%, 기타 4.0%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종교인구 비율이 50.1%인데 반해 여자의 종교인구 비율은 71.8%로 여자가 남자보다 21.7%p 높았다(통계청, 2004: 264-265).

7) 조사대상자의 종교분포가 이와 같이 불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이유는 수도권 지역의 주요 질문지 조사대상지역인 복지관 위탁기관의 종교성향이 불교가 4곳, 기독교가 2곳, 천주교가 1곳으로 배포 수에 있어 불교성향의 복지관이 양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본다. 물론 위탁기관의 종교성향에 의하여 복지관 이용자가 제한을 받거나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표 4-6> 「2004년 고령자 통계」 상의 고령자 종교비율

(단위 : %)

	전체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종교 없음
전 체	53.9	47.0	36.8	13.7	2.5	46.1
65세이상	63.2	52.3	31.4	12.2	4.0	36.8
남 자	46.4	47.4	36.4	13.3	2.9	53.6
65세 이상	50.1	50.4	30.6	12.2	6.8	49.9
여 자	61.0	46.8	37.0	14.0	2.2	39.0
65세 이상	71.8	53.2	31.8	12.2	2.7	28.2

※자료 : 통계청, 「2003년사회통계조사보고서」.

(4) 배우자 상황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배우자 상황은 <표 4-7>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상황에 있어서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212명(6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사별은 103명(30.4%)으로 두 번째의 비율을 나타내었고 별거나 이혼은 각 7명씩으로 4.2%의 비율을 보였다.

<표 4-7>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상황

특성별 수	구분	빈도(N)	백분율(%)
배우자관계	동 거	212	62.5
	사 별	103	30.4
	별 거	7	2.1
	이 혼	7	2.1
	기 타	6	1.8
	무 응 답	4	1.2
	계	339	100.0

「2004년 고령자 통계」에서 살펴본 고령자 배우자 상황은 <표 4-8>와 같이 2000년 65세 이상 인구의 배우자상황에서 유배우 52.0%, 사별 47.0%, 이혼 0.7%, 미혼 0.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 남자의 경우 유배우가 85.4%이고 사별이 13.5%인데 반해 여자의 경우 유배우가 31.3%에 불과하고 사별은 67.6%이다. 연령별로 보면 70대의 경우 사별이 높아져 51.8%였고 80대에서는 75.8%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4: 88).

<표 4-8> 「2004년 고령자 통계」 상의 고령자 배우자 상황

(단위 : 천명, %)

		전 체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65세 이상	3,372	0.3	52.0	47.0	0.7
65~69세	1,376	0.4	67.0	31.6	1.0
70~79세	1,519	0.3	47.2	51.8	0.6
80세 이상	477	0.2	23.6	75.8	0.3

		남 자				여 자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65세 이상	1,287	0.3	85.4	13.5	0.8	2,084	0.3	31.3	67.6	0.7
65~69세	594	0.3	90.9	7.7	1.0	782	0.4	48.8	49.8	1.1
70~79세	560	0.3	84.3	14.7	0.6	959	0.3	25.6	73.4	0.6
80세이상	134	0.2	65.0	34.3	0.3	343	0.3	7.4	92.0	0.3

※ 자료 : 통계청, 「2000년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5) 가족구성원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가족구성원은 <표 4-9>와 같다.

조사대상자가 배우자하고만 사는 경우가 133명으로 39.2%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혼자 사는 경우 56명(16.5%),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46명(13.6%), 배우자 및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사는 경우 26명(7.7%),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22명(6.5%), 배우자 및 결혼한 자녀와 사는 경우 15명(4.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동거 형태들은 빈도가 높지 않았다.

<표 4-9>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특성 변인	빈도(N)	백분율(%)
독거(혼자살)	56	16.5
배우자	133	39.2
결혼한 자녀	46	13.6
결혼하지 않은 자녀	22	6.5
손 자녀	4	1.2
친척	1	.3
기타	2	.6
배우자+결혼한 자녀	15	4.4
배우자+결혼한자녀+결혼하지않은자녀	1	.3
배우자+결혼한자녀+결혼하지않은자녀+손 자녀	2	.6
배우자+결혼한 자녀+손 자녀	8	2.4
배우자+결혼하지않은자녀+손자녀	3	0.9
배우자+결혼하지않은자녀	26	7.7
배우자+손 자녀	7	2.1
배우자+친척	1	.3
결혼한자녀+결혼하지않은자녀	2	.6
결혼한 자녀+손 자녀	5	1.5
결혼하지않은자녀+손 자녀	1	.3
손 자녀+친척	1	.3
무응답	3	.9
계	339	100.0

「2005년 고령자 통계」에서 살펴본 고령자 세대구성은 <표 4-10>와 같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의 30.8%는 3세대이상 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가구(부부로 구성된 가구)거주비율은 28.7%, 2세대가구는 23.9%로 나
 타났다. 또한, 노인 혼자 사는 1인가구는 16.2%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
 로 보면 65~69세 연령층은 1세대 가구에, 70세 이상은 3세대이상 가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85).⁸⁾

<표 4-10> 「2005년 고령자 통계」상의 고령자 세대구성

(단위 : %)

	계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100.0	100.0	100.0	100.0
1세대가구	28.7	35.5	27.5	12.8
2세대가구	23.9	27.3	19.9	26.5
3세대이상가구	30.8	23.2	33.3	45.1
1인 가구	16.2	13.7	18.9	15.0
비혈연가구(미상포함)	0.4	0.4	0.5	0.5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0.

(6) 생활수준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생활수준은 <표 4-1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생활수준은 5단계로 나누어서 조사되었는데 177명(52.2%)이
 중간이라는 응답을 하여 가장 높았고, 중상(中上) 62명(18.3%), 중하(中下)
 53명(15.6%), 낮음 38명(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5단계별
 생활수준은 대상자의 주관적 계층의식의 수준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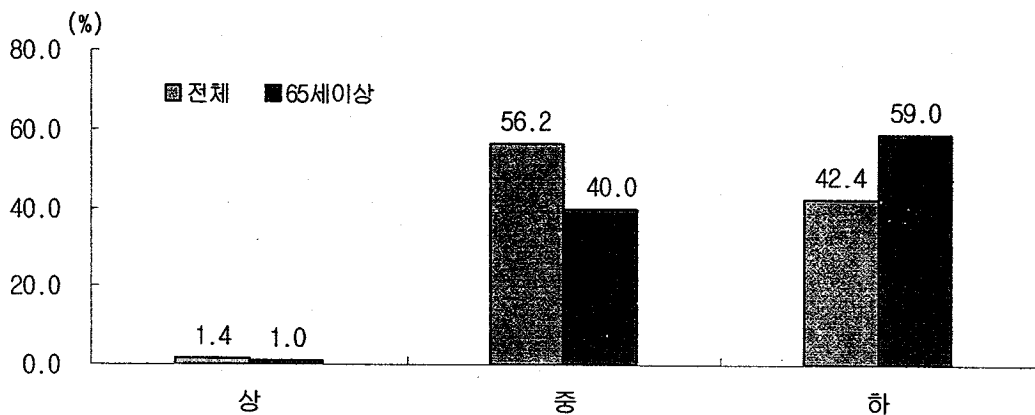
8) 통계에서 가구별 세대 구성은 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가족구성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1세대가구는 부부로 구성된 가구이며 1인 가구는 독거가구를 말하고 있다.

<표 4-11> 조사대상자의 생활수준

특성변수	구분	빈도(N)	백분율(%)
생활수준	높음	6	1.8
	중상	62	18.3
	중간	177	52.2
	중하	53	15.6
	낮음	38	11.2
	무응답	3	.9
	계	339	100.0

「2005년 고령자 통계」에서 살펴본 고령자의 주관적 계층의식의 비율은<그림 4-1>과 <표 4-12>와 같다. 2003년 소득, 교육, 직업, 재산 등을 고려한 65세 이상 가구주의 계층의식을 보면 「상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 중류층 40.0%, 하류층 59.0%로 나타났다.

<그림 4-1> 「2005년 고령자 통계」상의 주관적 계층의식



또한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하층이 51.9%, 중층 46.9%, 상층 1.1%이며, 여자의 경우는 하층이 72.2%, 중층 27.1%, 상층이 0.8%로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여자가 남자보다 20.3%p 높았다.

전체와 고령자의 대비를 보면 하류층이라 대답한 비율이 고령자의 비율이 16.6%에 이르러 전체에 비해 고령자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5: 237).

<표 4-12> 「2005년 고령자 통계」 상의 주관적 계층의식

(단위 : %)

	2003년도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전 체	1.4	56.2	42.4
65세 이상	1.0	40.0	59.0
남 자	1.5	59.7	38.7
65세 이상	1.1	46.9	51.9
여 자	1.0	41.0	58.0
65세 이상	0.8	27.1	72.2

※ 자료 : 통계청, 「2003년사회통계조사보고서」.

2. 생활만족도 특성

1) 자원봉사참여 노인의 생활만족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측정한 결과 그 점수 분포는 <표 4-13>과 같다.

<표 4-13> 자원봉사참여 노인의 생활만족도 수준의 점수 분포

생활만족도		빈 도(N)	백분율(%)
구간점수	11 - 15	1	.3
	16 - 20	2	.9
	21 - 25	9	2.7
	26 - 30	66	19.5
	31 - 35	119	35.2
	36 - 40	76	22.3
	41 - 45	42	12.4
	46 - 50	23	6.9
계		339	100.0
평 균 : 35.16 분 산 : 38.98 최고치 : 50		표준편차 : 6.24 왜 도 : .32 최 저 치 : 15	표준오차 : .34 첨 도 : .26 범 위 : 35

<표 4-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수준의 점수분포는 최저치 15점에서부터 최고치 50점까지 나타났으며, 따라서 범위는 35이었다. 구간점수는 생활만족도 점수의 범위에서 5점씩 등간으로 나눈 점수이다. 각 구간점수에 해당하는 빈도 및 왜도(.32)로 보았을 때, 분포의 꼬리부분이 평균점수보다 낮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부적 편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사결과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참여만족도 수준이 전체의 평균보다 높은 사람이

많음을 의미한다. 또한 분포곡선의 모양을 나타내는 첨도는 .26을 나타내 분포곡선의 모양이 정상분포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만족도 수준의 평균점수는 35.16점 이었으며 이 점수를 100 점으로 환산했을 때 70.32점이며 표준편차는 6.24, 표준오차는 .3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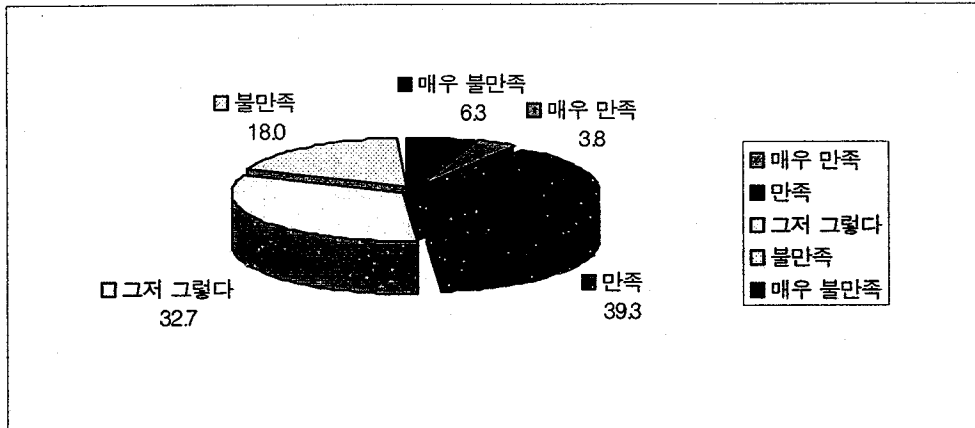
2) 일반노인과의 비교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9,308가구에 대한 가구조사와 조사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 3,278명에 대한 개별조사에 의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결과를 보면 <그림 4-2>와 <표 4-14>와 같이 노인의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조사대상 노인의 43.1%가 동년배와 비교하여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43.1%는 그들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32.7%는 보통, 24.3%는 불만족으로 나타났고, 영역별로는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자녀에 대한 만족도는 68.9%,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64.1%로 나타난 반면,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38.4%와 19.6%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동부)지역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농촌(읍면)지역 노인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여자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196).

이와 비교하여 본 연구조사의 자원봉사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는 100%로 환산했을 때 70.32%라는 높은 만족도 수준이 되는데 이 결과로 자원봉사라는 긍정적인 사회참여활동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비교 척도가 동일한 것이 아니지만 일반 노인과 자원봉사참여 노인의 만족도수준을 어느 정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로써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그림 4-2> 일반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발표자료 인용
(보건복지부, 2005)

<표 4-14> 65세 이상 노인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

	계	삶 전반			건강상태			경제상태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65세 이상	100	43.1	32.7	24.3	38.4	19.8	41.8	19.6	31.8	48.6
동부(도시)	100	43.8	31.6	24.6	40.0	20.0	40.0	21.2	29.1	49.7
읍면부	100	41.4	34.9	23.8	35.0	19.5	45.4	16.3	37.5	46.1
남자	100	49.4	32.2	18.4	52.1	18.3	29.6	23.6	33.0	43.3
여자	100	39.1	33.0	28.0	29.8	20.8	49.4	17.0	31.1	51.8

	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65세 이상	100	64.1	27.7	8.1	68.9	22.0	9.0
동부(도시)	100	64.0	29.2	6.9	67.4	23.0	9.6
읍면부	100	64.3	24.7	10.9	72.1	20.0	7.9
남자	100	70.1	25.5	4.4	71.3	21.2	7.5
여자	100	54.7	31.2	14.1	67.5	22.5	1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제2절 참여동기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1. 참여동기와 생활만족도간 상관관계

자원봉사참여 동기와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이들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1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동기 각 영역 간에는 $r=.285$ 부터 $r=.785$ 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p<.01$ 수준에서 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특히 ‘참여동기’ 전체와 각 영역 간에는 $r=.67$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4-15> 참여동기 하위요인 간 상관 행렬표

구분	심리 면	생활 면	외부 기대	사회 자극	사회 보상	참여 동기	생활 만족도
심리면(N=339)	-						
생활면(N=339)	.553**	-					
외부기대(N=339)	.364**	.393**	-				
사회자극(N=339)	.376**	.323**	.543**	-			
사회보상(N=339)	.310**	.285**	.564**	.581**	-		
참여동기(N=339)	.682**	.672**	.785**	.778**	.764**	-	
생활만족도(N=339)	.129*	.188**	-.009	.014	.016	.085	-

* $p<.05$, ** $p<.01$

참여동기 전체 점수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r=.085$, $p>.05$ 로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참여동기 각 요인과 생활만족도 간에는 ‘심리적인 면’이 $r=.129$ 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생활적인 면’이 $r=.188$ 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외부기대', '사회자극', '사회보상', 등과 같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참여동기' 변인은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동기' 변인의 세부 영역 중 '심리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이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참여동기 세부 요인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동기의 5개 하위영역인 심리적인 면, 생활적인 면, 외부기대, 사회적 자극, 사회적 보상별로 세부 요인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ANOVA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심리적인 면의 세부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심리적 동기 면에서는 삶의 의미, 경험과 기술의 전수, 종교적 신념의 실천 등 3가지 요인을 다루었다. 이들 3개 요인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4-16>과 같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고려한 정도에 따라서는 집단간에 $F=3.164$ 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치 개별 비교 결과 '매우 고려'한 집단이 '그저 그렇다' 집단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있어 삶의 의미를 찾고자 참여한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동기로 '나의 경험과 기술'을 나누고자 고려한 정도에 따라서는 집단간에 $F=3.329$ 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치 개별

비교 결과 ‘매우 고려’한 집단이 ‘어느 정도 고려’한 집단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동기로 축적해온 경험이나 기술을 전수하고자 고려한 정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6> 심리적인 면의 세부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구분		N	M	SD	F	p	Scheffe
삶의 의미	전혀 고려하지 않음(A)	12	35.17	6.85	3.164	.014	E>C
	고려하지 않음(B)	15	34.27	5.71			
	그저 그렇다(C)	57	33.40	5.44			
	고려함(D)	119	34.56	5.05			
	매우 고려함(E)	136	36.52	7.23			
경험 전수	전혀 고려하지 않음(A)	21	33.71	4.89	3.329	.011	E>D
	고려하지 않음(B)	21	36.24	4.89			
	그저 그렇다(C)	105	34.85	6.33			
	고려함(D)	115	34.16	5.52			
	매우 고려함(E)	77	37.17	7.33			
종교적 신념 실천	전혀 고려하지 않음	51	35.71	5.34	2.086	.082	NS
	고려하지 않음	26	34.04	6.28			
	그저 그렇다	106	34.90	6.17			
	고려함	79	34.06	5.64			
	매우 고려함	77	36.65	7.22			
전체		339	35.16	6.24			

참여 동기로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고자 고려한 정도에 따라서는 집단 간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의 실천이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을 맺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활만족도 평균에 있어서 종교적 신념의 실천을 ‘매우 고려’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종교적 신념의 실천에 대한 고려 정도가 생활만족도와 관련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 생활적인 면의 세부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생활적 동기 면에서는 여가시간 활용, 대인관계 증진, 건강유지 등 3가지 요인을 다루었다. 이들 3개 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비교한 변량분석 결과는 다음 <표 4-17>과 같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자 고려한 정도에 따라서는 집단간에 $F=5.397$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치 개별비교 결과 ‘매우 고려’한 집단이 그보다 덜 고려한 집단(그저 그렇다, 고려함)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있어 여가시간 활용을 고려한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로 ‘대인관계 증진’을 고려한 정도에 따라서는 집단간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있어 ‘대인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와 생활만족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인관계 증진을 ‘매우 고려’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생활만족도 평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대인관계 증진 고려의 정도가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로 ‘건강을 유지’하고자 고려한 정도에 따라서는 집단간에 $F=2.685$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치 개별비교 결과 ‘매우 고려’한 집단이 ‘고려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나의 건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7> 생활적인 면의 세부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구분		N	M	SD	F	p	Scheffe
여가 시간 활용	전혀 고려하지 않음(A)	19	33.53	4.99	5.397	.000	E>C,D
	고려하지 않음(B)	14	32.14	6.72			
	그저 그렇다(C)	103	34.39	5.91			
	고려함(D)	100	34.40	5.48			
	매우 고려함(E)	103	37.37	6.87			
대인관 계 증진	전혀 고려하지 않음	21	34.48	5.42	2.059	.086	NS
	고려하지 않음	24	35.88	5.57			
	그저 그렇다	101	34.50	6.01			
	고려함	95	34.38	5.48			
	매우 고려함	98	36.56	7.27			
건강 유지	전혀 고려하지 않음(A)	13	34.46	3.89	2.685	.031	E>B
	고려하지 않음(B)	10	30.90	7.02			
	그저 그렇다(C)	68	34.57	5.35			
	고려함(D)	115	34.64	5.42			
	매우 고려함(E)	133	36.29	7.21			
전체		339	35.16	6.24			

3) 외부 기대면의 세부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로 외부 기대 면에서는 가족 및 친지의 기대, 이웃 및 친구의 기대, 다른 사람의 권유나 추천 등 3가지 요인을 다루었다. 이들 3개 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비교한 변량분석 결과는 다음 <표 4-18>과 같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로 ‘가족 및 친지의 기대’를 고려한 정도에 따라서는 집단간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 및 친지의 기대’에 대한 고려 정도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로 ‘이웃 및 친구의 기대’를 고려한 정도에 따라서는 집단간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이웃 및 친구의 기대’ 요인이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로 ‘다른 사람의 권유나 추천’을 고려한 정도에 따라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권유나 추천’에 대한 고려 정도 역시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외부기대 면의 세부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구분		N	M	SD	F	p	Scheffe
가족 기대	전혀 고려하지 않음	42	35.67	8.27	.334	.855	NS
	고려하지 않음	53	34.81	5.18			
	그저 그렇다	130	35.01	5.94			
	고려함	61	34.82	5.74			
	매우 고려함	53	35.85	6.79			

구분		N	M	SD	F	p	Scheffe
친구 기대	전혀 고려하지 않음	37	35.84	8.22	.235	.919	NS
	고려하지 않음	55	35.18	5.76			
	그저 그렇다	127	34.80	5.44			
	고려함	72	35.29	6.28			
	매우 고려함	48	35.35	7.13			
타인 권유	전혀 고려하지 않음	59	36.31	6.90	1.215	.304	NS
	고려하지 않음	37	34.35	4.72			
	그저 그렇다	125	34.82	5.84			
	고려함	81	34.65	6.08			
	매우 고려함	37	36.35	7.90			
전체		339	35.16	6.24			

4) 사회적 자극 면의 세부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로 사회적 자극 면에서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 언론매체 홍보를 통해,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등의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기관의 안내를 통해 등 3가지 요인을 다루었다. 이들 3개 요인에 대한 고려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4-19>와 같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 ‘언론매체 홍보’를 고려한 정도에 따라 집단간에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언론매체의 홍보를 통

해 참여하게 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

<표 4-19> 사회적 자극 면의 세부요인에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구분		N	M	SD	F	p	Scheffe
언론 매체 홍보	전혀 고려하지 않음	64	36.45	6.70	1.722	.145	NS
	고려하지 않음	53	34.83	6.39			
	그저 그렇다	132	34.61	5.71			
	고려함	48	34.19	5.11			
	매우 고려함	42	36.43	7.74			
경로당 , 노인 대학 통해	전혀 고려하지 않음(A)	50	37.70	6.74	5.624	.000	A,E>C
	고려하지 않음(B)	41	34.29	6.42			
	그저 그렇다(C)	116	33.99	5.69			
	고려함(D)	86	34.37	5.51			
	매우 고려함(E)	46	37.57	6.93			
봉사 기관 안내	전혀 고려하지 않음(A)	50	35.96	6.68	4.126	.003	E>B
	고려하지 않음(B)	31	32.84	3.80			
	그저 그렇다(C)	82	34.46	5.74			
	고려함(D)	101	34.47	5.57			
	매우 고려함(E)	75	37.27	7.50			
전체		339	35.16	6.24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을 통해’ 고려

한 정도에 따라 집단간에는 $F=5.624$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평균치 개별비교 결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집단과 ‘매우 고려한’ 집단이 ‘그저 그렇다’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우 고려한 집단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집단간에는 생활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등을 통한 고려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 ‘자원봉사기관의 안내’를 고려한 정도에 집단간에는 $F=4.126$ 으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평균치 개별비교 결과 ‘매우 고려’한 집단이 ‘고려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봉사기관의 안내를 고려한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사회적 보상 면의 세부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로 사회적 보상 면에서는 주변의 인정, 감사의 인사를 받음, 봉사의 대가를 받음 등 3가지 요인을 다루었다. 이들 3개 요인에 대한 고려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4-20>과 같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로 ‘주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정도에 따라 집단 간에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주변의 인정을 받기위해 참여한 사람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생활만족도 평균에 있어 ‘매우 고려’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사회적 보상 면의 세부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구분		N	M	SD	F	p	Scheffé
주변의 인정	전혀 고려하지 않음	53	35.13	6.87	.874	.480	NS
	고려하지 않음	46	35.96	5.54			
	그저 그렇다	119	34.49	5.45			
	고려함	59	34.95	5.86			
	매우 고려함	62	36.07	7.79			
감사의 인사	전혀 고려하지 않음(A)	66	35.06	6.10	9.257	.000	E>A,B,C, D
	고려하지 않음(B)	47	35.23	5.77			
	그저 그렇다(C)	109	33.21	5.24			
	고려함(D)	63	35.06	6.15			
	매우 고려함(E)	54	39.24	7.00			
봉사자의 대가	전혀 고려하지 않음(A)	137	36.29	6.77	2.498	.043	A>D
	고려하지 않음(B)	36	35.19	5.19			
	그저 그렇다(C)	118	34.53	5.59			
	고려함(D)	34	33.06	6.40			
	매우 고려함(E)	14	34.29	6.88			
전체		339	35.16	6.24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로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정도에 따라 집단 간에는 $F=9.257$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평균치 개별비교 결과 ‘매우 고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참여에 있어 감사의 인사를 받는데 고려한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로 ‘봉사한 대가로 용돈이 생긴다’는 측면을 고려

한 정도에 따라 집단 간에는 $F=2.498$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치 개별비교 결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집단이 ‘고려’한 집단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봉사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내며, 이는 봉사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대가가 있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제3절 대인지지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대인지지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한 결과를 다음 <표 4-21>에 제시하였다.

<표 4-21> 대인지지와 생활만족도 간 상관 행렬표

(N=339)

구분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대인지지	생활 만족도
가족의 지지	-			
친구의 지지	.720**	-		
대인지지	.926**	.929**	-	
생활 만족도	.377**	.383**	.410**	-

** $p<.01$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인지지 전체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r=.410$ 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하위 영역 중 ‘가족의 지지’($r=.377$, $p<.01$), ‘친구의 지지’($r=.383$, $p<.01$) 모두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대인지지를 받는 사람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인지지가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이라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제4절 활동실태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활동실태’ 변인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활동실태 세부 요인별로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활동경로

활동실태의 영역 중 활동경로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검증 결과는 다음 <표 4-22>와 같다.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활동경로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되었는가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활동경로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구분		N	M	SD	F	p	Scheffe
활동 경로	언론매체	34	36.06	6.23	1.083	.372	NS
	홍보물	19	32.42	5.58			
	단체 프로그램 참가	56	36.09	5.74			
	친구, 회원 권유	83	35.06	6.72			
	종교, 사회단체 권유	73	34.55	6.47			
	단체장, 단체직원 권유	42	35.50	6.31			
	기타	32	35.38	5.44			
	전체	339	35.16	6.24			

한편, 행정자치부에서 연구용역(사단법인 블런티어21)으로 수행한 2004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 등에 대한 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동 경로는 참가하고 있는 단체(종교단체포함)나 조직 또는 직장을 통해서 54.4%, 외부로부터 요청 32.3%, 스스로 참여 18.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블런티어21, 2005).

2. 활동기간

활동실태의 영역 중 활동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4-23>과 같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활동기간에 따라 $F=5.078$ 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치 개별비교 결과 활동 기간이 '3년-5년', '5년 이상' 등 3년 이상 집단이 '1년 미만' 집단에 비하여 생활만족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기간이 길수록 자신의 생활에 만족을 경험하는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활동기간이 생활만족도와 관련한 주요 변인임을 시사한다.

<표 4-23> 활동기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구분		N	M	SD	F	p	Scheffe
활동 기간	1년 미만(A)	69	32.58	5.77	5.078	.001	D, E>A
	1년-2년(B)	62	34.86	6.16			
	2년-3년(C)	52	35.27	6.68			
	3년-5년(D)	94	36.09	6.01			
	5년 이상(E)	61	37.00	5.96			
	전체	338	35.18	6.23			

※ 사례 수는 전체 사례 수 339명 중 미응답자는 제외한 것임.

3. 활동시간

활동실태의 영역 중 활동시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검증 결과는 다음 <표 4-24>와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활동 시간에 따라 $F=4.552$ 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치 개별비교 결과 ‘주당 몇 시간’을 봉사하는 집단이 ‘기타’ 집단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주단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월단위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월단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비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생활만족도는 더 높아 지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자원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4-24> 활동시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구분		N	M	SD	F	p	Scheffe
활동 시간	주당몇회(A)	270	35.76	6.33	4.552	.004	A>D
	월당몇회(B)	32	33.72	5.22			
	비정기 월몇시간(C)	23	32.78	3.79			
	기타(D)	7	29.71	3.50			
	전체	332	35.23	6.14			

※ 사례 수는 전체 사례 수339명 중 미응답자는 제외한 것임.

한편, 2005년도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 등에 대한 연구용역(사단법인 볼런티어21)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2004년 월간 자원봉사 시간이 60세 이상이 14.6시간, 50대가 10.5시간, 40대가 6.8시간, 30대가 6.9시간, 20대가 5.5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볼런티어21, 2005: 98-105).

4. 활동부문

활동실태의 영역 중 활동부문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다음 <표 4-25>에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활동부문에 있어서도 집단간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다.

<표 4-25> 활동부문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구분		N	M	SD	F	p	Scheffe
활동 부문	환경보호, 감시	22	32.50	4.38	2.015	.063	NS
	지역청소, 교통정리	62	34.15	6.53			
	청소년선도, 유해환경 감시	18	34.33	5.21			
	행정업무 보조	21	35.43	6.37			
	전통문화 전수	35	34.74	5.53			
	요보호 대상자 도움	80	36.59	6.92			
	기타	93	35.97	5.86			
	전체	331	35.29	6.21			

※ 사례 수는 전체 사례 수 339명 중 미응답자는 제외한 것임.

그러나 만족도 평균의 순서로 보았을 때, ‘요보호 대상자 도움’ 집단이 평균 36.64로 가장 높았고, ‘행정업무보조’, ‘전통문화 전수’, ‘지역청소, 교통정리’, ‘청소년선도, 유해환경 감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요보호 대상자 등과 같이 생활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의 경우에 자신의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5. 활동인식

활동실태의 영역 중 활동인식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26>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동인식 각 문항 간에는 대부분의 문항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봉사활동의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봉사활동의 결과 확인의 곤란성에 대한 인식’, ‘봉사활동에서의 창조성 발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 3개의 문항(이들 부정문항으로 역산하였음)은 대부분 다른 문항과 유의한 상관이 없거나,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각 문항과 활동인식 전체 간에는 $r=.177$ 부터 $.676$ 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각 문항과 활동인식 간에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문항과 생활만족도 간에는 세 개의 문항(‘봉사활동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봉사활동의 결과 확인의 곤란성에 대한 인식’, ‘봉사활동에서의 창조성 발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외한 문항들에서 $r=.213$ 부터 $r=.395$ 까지 나타났으며, $p<.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대하여 ①참여 시간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거나, ②봉사활동 장소와의 거리가 적절하거나, ③봉사활동 준비량과 시간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거나, ④자신의 성격과 맞다고 생각하거나, ⑤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인식하거나, ⑥자신의 활동이 타인의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거나, ⑦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거나, ⑧참여중인 봉사활동이 인기가 좋다고 인식하거나, ⑨봉사활동의 시작과 끝이 명백하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인식 전체 점수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r=.563$ 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대

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동인식’ 변인은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활동인식 문항 간 상관 행렬표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활동인식
1	-												
2	.558**	-											
3	.567**	.591**	-										
4	.565**	.459**	.491**	-									
5	.427**	.357**	.396**	.527**	-								
6	.006	-.055	-.071	-.116*	-.142**	-							
7	.044	-.003	.037	.027	-.106	.279**	-						
8	.400**	.185**	.298**	.319**	.296**	-.032	-.057	-					
9	.460**	.324**	.400**	.519**	.437**	-.085	.003	.485**	-				
10	.023	-.018	-.073	.050	-.061	.133**	.341**	.011	.032	-			
11	.400**	.270**	.352**	.429**	.330**	-.036	-.035	.427**	.408**	.001	-		
12	.439**	.325**	.382**	.473**	.341**	-.028	.047	.445**	.572**	.058	.535**	-	
활동인식	.666**	.581**	.622**	.676**	.551**	.177*	.267**	.523**	.655**	.276**	.558**	.663**	-
만족도	.331**	.213**	.287**	.395**	.321**	-.058	.055	.273**	.378**	.107	.283**	.379**	.563**

*p<.05, **p<.01

※ 구분 란의 숫자는 문항 번호이며, 각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자원봉사활동 참여 시간의 적절성
2. 자원봉사활동 장소까지의 거리의 적절성
3. 자원봉사활동 수행 준비량과 시간의 적절성
4. 자원봉사활동과 자신의 성격과의 일치성
5. 자원봉사활동이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음
6. 자원봉사 기관에서의 참여 봉사활동의 중요성▲
7. 자원봉사활동에서 자신의 일의 결과 확인의 곤란성▲
8. 자원봉사활동이 타인의 복지에 영향을 준다는데 대한 인식
9. 자원봉사활동 지속적 참여 가능성
10. 자원봉사활동에서의 창조성 발휘 가능성▲⁹⁾
11. 참여중인 자원봉사활동의 인기도
12. 자원봉사활동의 업무의 시작과 끝의 명확성

9) ▲표시 항목은 부정문항으로 행렬표상은 역산한 상관 결과이다.

제5절 개인특성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개인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각 요인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개인적 특성의 영역 중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증 결과는 <표 4-27>과 같다.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 검증 결과 $t=1.971$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자신의 생활에 대해 더 많은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N	M	SD	t	p
남 자	169	34.49	5.65	1.971	.049
여 자	167	35.83	6.78		

※ 사례 수는 전체 사례 수 339명 중 미응답자 3명을 제외한 것임.

2. 연령

개인적 특성의 영역 중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검증 결과를 <표 4-28>에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에 따라서는 집단간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활만족도 평균의 순

위로 볼 때, 70-79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4-28>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구분		N	M	SD	F	p	Scheffé
연령	60 - 69세	131	35.32	6.20	1.839	.161	NS
	70 - 79세	172	35.43	6.18			
	80세 이상	32	33.13	6.82			
	전체	335	35.17	6.27			

※ 사례 수는 전체 사례 수 339명 중 미응답자를 제외한 것임.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보면, 70-90세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 연령대에서 생활만족도 평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비교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간 변인이 작용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짐작된다.

3. 교육수준

개인적 특성의 영역 중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다음 <표 4-29>에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집단간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참여 노인의 교육수준과 생활만족도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구분		N	M	SD	F	p	Scheffe
교육 수준	무학	25	34.52	8.35	1.093	.364	NS
	서당	7	30.00	5.80			
	초등학교	73	35.30	6.47			
	중학교	58	35.55	5.76			
	고등학교	103	35.40	6.05			
	대학교 이상	70	35.06	5.91			
	전체	336	35.16	6.26			

※ 사례 수는 전체 사례 수에서 미응답자를 제외한 것임.

4. 종교

개인적 특성의 영역 중 종교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4-30>과 같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교에 따라서도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생활만족도 평균에 있어서 천주교의 경우 가장 높았고, 그다음 기독교, 불교, 민족종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참여 노인의 종교와 생활만족도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도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 등에 대한 연구용역(사단법인 블런티어21)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원봉사자 가운데 종교적 비율은 기독교 32.0%, 불교 20.2%, 카톨릭이 15.7%의 순이며 종교가 없다는 대답이 31.4%나 되고 있다. 이는 자원봉사에 종교와 상관없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종교별 전체 응답자중 2004년 1년간 자원봉사참여비율이 카톨릭 30.4%, 기독교 29.1%, 불교 16.7% 순으로 나

타나고 있다(불런티어21, 2005: 72-73).

<표 4-30> 종교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구분		N	M	SD	F	p	Scheffe
종교	불교	107	34.50	6.00	.813	.541	NS
	천주교	74	35.91	7.05			
	기독교	76	34.83	6.09			
	민족종교	8	34.00	6.74			
	무교	54	35.52	4.68			
	기타	20	36.65	8.29			
	전체	339	35.16	6.24			

5. 배우자 상황

개인적 특성의 영역 중 배우자 상황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검증 결과는 다음 <표 4-31>과 같다.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서도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평균 순위에 있어서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평균은 35.57로 가장 높았고, 사별 35.55, 동거 35.24, 별거 2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만족을 경험하는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클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2005년도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 등에 대한 연구용역(사단법인 불런티어21)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원봉사자 가운데 혼인상태에서 기혼이 74.9%, 미혼 22.4%, 이혼/사별이 2.7%로 나타나고 있다(불런티어 21, 2005: 67-68).

<표 4-31> 배우자 상황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구분		N	M	SD	F	p	Scheffe
배우자 상황	동거	212	35.24	5.69	2.178	.071	NS
	사별	103	35.55	6.94			
	별거	7	29.00	8.45			
	이혼	7	35.57	8.20			
	기타	6	32.17	6.80			
	전체	335	35.16	6.27			

※ 사례 수는 전체 사례 수에서 미응답자를 제외한 것임.

6. 가족구성원

개인적 특성의 영역 중 가족구성원 상황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 4-32>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동거 상황에 따라서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생활만족도 평균 순위에 있어서 혼자 사는 경우 36.13으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 35.61, 기혼자녀 35.36, 미혼자녀 35.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동거하는 가족이 많지 않은 경우 삶의 즐거움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봉사활동을 비롯한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또한 생활만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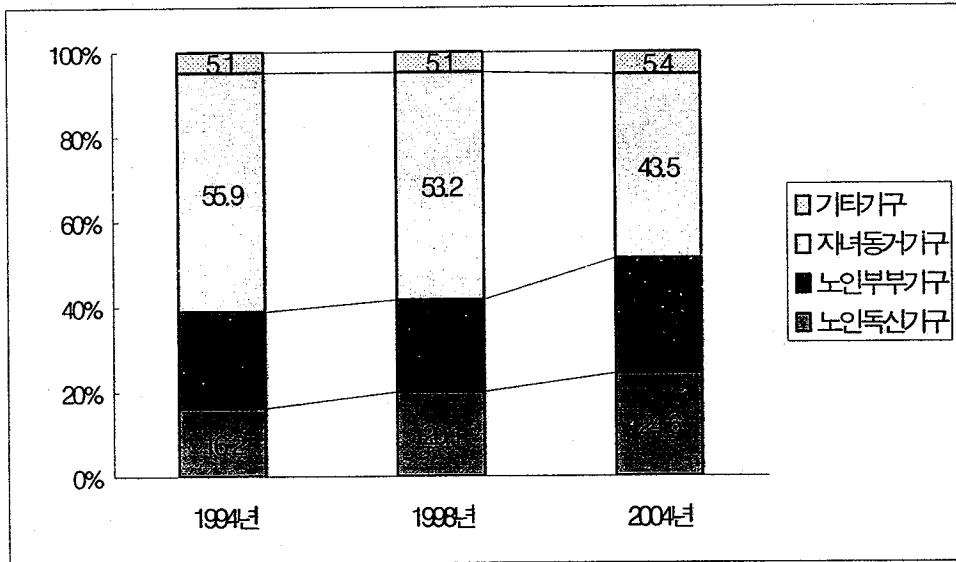
<표 4-32> 가족구성원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구 분		N	M	SD	F	p	Scheffé
가족 구성 원	독거(혼자삶)	56	36.16	6.89	.570	.723	NS
	배우자	133	35.61	5.47			
	기혼 자녀	46	35.36	6.53			
	미혼 자녀	22	35.18	6.19			
	배우자+기혼 자녀	15	34.00	6.31			
	배우자+미혼 자녀	26	34.30	4.60			
	전체	298	35.45	5.94			

※ 사례 수는 전체 사례 수에서 미응답자를 제외한 것임.

한편, 2004년 6월 28일~9월 10일(75일간) 기간 중 9,308가구에 대한 가구조사와 조사가구내의 65세 이상 노인 3,278명에 대한 개인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보건복지부의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그림 4-2>와 같이 전체가구 중 노인가구(65세 이상 노인이 1명 이상 거주하는 가구)가 26.4%이며, 노인가구 중 노인 혼자 살고 있는 노인독신가구는 전체 노인가구 중 24.6%, 노인부부만 살고 있는 노인부부가구는 26.6%, 자녀와 동거중인 노인가구는 43.5%, 기타가구 5.4%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3〉 노인의 가구형태의 변화



※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발표자료 인용 (보건복지부, 2005)

본 연구에서 표집한 가족구성원 동거 상황의 단순사례비교를 해보면 독거 노인의 비율이 18%로 전국적인 표집사례 24.6%와는 6.6%가 차이 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조사의 표집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전국 표집의 경우 상대적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농어촌을 포함한 통계수치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보건복지부의 설명도 같은 조사에서 전국 읍·면지역의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61.3%인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표집의 비율은 전국조사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신뢰 있는 조사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7. 생활수준

개인적 특성의 영역 중 생활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검증 결과는 다

음 <표 4-3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수준에 있어서도 역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생활만족도 평균 순위로 보았을 때, 경제적 수준에 따라 생활 만족도 평균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의 만족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여기서 생활수준은 피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수준이다.

<표 4-33> 생활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비교

구분		N	M	SD	F	p	Scheffe
생활 수준	높음	6	37.67	6.44	2.015	.092	NS
	중상	62	36.69	6.53			
	중간	177	35.14	6.03			
	중하	53	33.87	5.85			
	낮음	38	34.13	7.05			
	전체	336	35.16	6.26			

※ 전체 339명 중 미응답자는 제외함

한편, 2005년도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 등에 대한 연구용역(사단법인 블런티어21)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원봉사자 가운데 월평균 가계소득 300만 원 이상의 중상류층이 40.2%로 나타나고 있다(블런티어21, 2005: 71-72).

제6절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변인

1. 변인간의 상관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한 변인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 ‘활동실태’, ‘대인지지’, ‘개인적 특성’ 등 4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앞에서는 이들 변인들과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변인의 하위변인들 중 명목변인(활동경로, 활동분야, 배우자상황, 가족구성원, 종교 등 5개 변인)을 제외한 변인들이 생활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인으로서는 ‘참여동기’ 변인의 5개 하위변인(심리적 동기, 생활적 동기, 외부기대 동기, 사회자극 동기, 사회보상 동기 등), ‘활동실태’ 변인의 3개 하위변인(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인식 등), ‘대인지지’ 변인의 2개 하위변인(가족지지, 친구지지), ‘개인적 특성’ 변인의 4개 하위변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생활수준 등)을 설정하였다. 이들 독립변인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34>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변인 간에는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34>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간 상관 행렬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												
2	.553**	-											
3	.364**	.393**	-										
4	.376**	.323**	.543**	-									
5	.310**	.285**	.564**	.581**	-								
6	.043	-.032	.010	.017	-.018	-							
7	.158**	.152**	.116*	.078	.101	.082	-						
8	.051	.026	.036	.059	.084	.233**	.184**	-					
9	.111*	.106	.132*	.074	.120*	.061	.101	.433**	-				
10	.154**	.112*	.144**	.103	.153*	.053	.181**	.396**	.720**	-			
11	.019	.108*	.126*	.067	.024	-.178**	.035	-.155**	-.045	-.043	-		
12	.118*	.181**	.129*	.136*	.121*	.030	-.033	-.082	-.001	-.012	-.244**	-	
13	-.052	-.054	.053	.035	-.019	-.013	.115*	.097	.070	.092	-.234**	-.193**	-
14	.020	.038	.120*	.126*	-.004	.058	.107	.155**	.109*	.118*	-.024	-.065	.190**

*p<.05, **p<.01

※ 구분 란의 숫자는 문항 번호이며, 각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심리적 동기 2. 생활적 동기 3. 외부기대 동기 4. 사회자극 동기 5. 사회보상

동기 6. 활동기간 7. 활동시간 8. 활동인식 9. 가족지지 10. 친구지지 11. 성별
12. 연령 13. 교육수준 14. 생활수준

2. 전체변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상의 독립변인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35>와 같다.

<표 4-35> 자원봉사활동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 인	생활만족도			F
	B	β	R ²	
상수	7.501			
심리적 동기	.016	.007	.601	12.637***
생활적 동기	.261	.120		
외부기대 동기	-.206	-.095		
사회자극 동기	.092	.042		
사회보상 동기	.067	.030		
활동기간	.431	.082		
활동시간	.149	.014		
활동인식	.364	.400***		
가족지지	.138	.076		
친구지지	.315	.177**		
성별	.279	.019		
연령	.129	.011		
교육수준	.107	.021		
생활수준	.366	.045		

p<.01, *p<.00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모델 설명력은 60.1%, F=12.637이었다.

이들 독립변인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활동인식’ 요인이 $\beta=.400$, $p<.001$ 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친구지지’ 요인이 $\beta=.177$, $p<.01$ 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다른 변인들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관련 변인 중 생활만족도와 관련한 제1 요인은 활동실태 변인 중 ‘활동인식’ 요인이며, 제2 요인은 ‘대인지지’ 변인 중 ‘친구지지’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생활만족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

앞의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참여노인의 독립변인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활동인식’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지지’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요인과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그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1) 활동인식요인

활동실태 변인의 영역 중 활동인식과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 분석 결과 활동인식 각 문항 간에는 부정적인 질문의 3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노인의 인식이 긍정적일 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 참여 시간이 적절하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② 봉사활동 장소와의 거리가 적절하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봉사활동 준비량과 시간이 적절하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자신의 성격과 맞는다고 생각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⑤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⑥ 자신의 활동이 타인의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⑦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⑧ 참여중인 봉사활동이 인기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⑨ 봉사활동의 시작과 끝이 명백하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자신이 봉사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인식도는 개인의 신변 환경적 부합성에 대한 인식과 자기 자신의 자원봉사 참여가 대사회적인 기여라는 사회적 공헌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신변 환경적 부합성에 대한 인식도는 봉사 시간이나 거리, 봉사에 관련한 준비와 거기에 투여되는 시간, 그리고 시작과 종료의 명료성, 자기성격과의 부합성과 봉사하는 일의 타인 간섭배제 등 봉사자 개인의 신변과 관련한 욕구환경과 봉사활동 환경과의 일치여부에 따라 현실적인 만족

의 성취를 가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원봉사환경 역시 참여하는 노인이 처한 신변적인 생활환경과 유사하여 자원봉사환경이 좋을수록 생활환경 역시 좋을 것이고 이것이 결국 각자의 생활만족을 높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자원봉사 참여가 대사회적인 기여라는 사회적 공헌성에 대한 인식도는 자신의 활동이 타인의 복지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할수록

생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자기 경험과 지식, 기술 등의 제공으로 자아성취감을 얻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친구지지 요인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인지지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이라는 점을 앞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인지지변인에서 가족지지요인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으나 친구지지요인이 가족지지요인보다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현대 노인들의 생활과 가치관을 비롯하여 행동원리를 엿볼 수 있는 매우 현실성 있는 분석결과이기 때문이다.

노인의 노후생활에 있어 가족과 대비하여 친구라는 존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측면이다.

사회적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는 노인에게 있어서 친구의 존재와 그 중요성은 자신의 역할 상실에 대비해하여 높아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가족의 해체와 더불어 가정에서조차 어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까지 소멸되어 설자리가 없어진 노인들은 가정에서 밖으로 나와 친구와 만나 서로

말벗이 되는 등 같은 입장에 대한 동병상련의 이해와 위안을 주고받으며 같이 보내는 시간 량이 많아져 심적인 의지 처로써 친구와의 유대와 결속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한쪽 배우자의 상실된 환경에 있는 노인들은 친구의 지지요인이 생활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은 명확하다.

노인이 자기와 같은 연령층의 친구와 잦은 만남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는 친구의 지지요인은 가족과 사회의 냉대와 소외, 무관심으로부터의 탈출구가 되어 자칫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하며, 인생 포기적인 생활을 반전시켜 생활에 자신감과 활력을 얻으며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어 잃어버린 역할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친구지지는 노인의 대인관계는 물론 자원봉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제5장 연구조사결과와 합의

제1절 연구조사의 결과

1. 변인별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참여동기, 대인지지, 활동실태, 개인적 특성 등 4개 변인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구명하고, 그들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 참여동기 변인

자원봉사참여 동기 전체에 있어서는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 변인 중에 ‘심리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에서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동기 각 영역별 세부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인 면’ 요인 중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고자 고려한 정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축적해온 경험이나 기술을 전수’하고자 고려한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의 실천’에 대한 고려 정도와 생활만족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적인 면’ 요인 중에서는 ‘여가시간 활용을 고려’한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았으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대한 고려 정도가 높은 사람이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대인관계를 고려’한 정도가 높은 사람

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생활만족도 평균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외부기대 면’ 요인 중에서는 가족 및 친지의 기대를 고려한 정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없었으며, ‘이웃 및 친구의 기대’를 고려한 정도에 따라서도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권유나 추천’을 고려한 정도에 따라서도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외부기대 면’ 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적 자극 면’ 요인 중에서는 ‘봉사기관 등의 안내’를 고려한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등을 매우 고려한 사람이나,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없었고, 다만, 이들 집단은 모두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등을 통한 고려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론매체 홍보’를 고려한 정도에 따라서는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적 보상 면’ 요인 중에서는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봉사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주변의 인정을 받는데 대해 ‘매우 고려’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생활만족도 평균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2) 대인지지 변인

대인지지 변인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r=.410$ 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지지 변인의 하위 요인

인 ‘가족의 지지’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r=.377$ 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
관이 있었으며, ‘친구의 지지’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r=.383$ 으로 $p<.01$ 수
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대인지지’가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3) 활동실태변인

활동실태 변인 중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인식 수준 등 3개 요인에 따
라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었으나, 활동경로, 활동부문 등 2개 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없었다.

즉, 활동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활동시간이
빈번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았으며, 활동인식에 있어 긍정적일수록 생활만
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개인적 특성 변인

개인적 특성 변인 중 성별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성별
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에 비하여 여성
이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별 이외의 연령, 교육수준, 종교, 배우자 상황, 가족 구성원, 생
활수준 등의 변인에 있어서는 이들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생활만족도 관련변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중 생활만족도에 관련이 깊은 변인은 ‘활동실태’

변인의 하위변인인 ‘활동인식’ 변인과 ‘대인지지’ 변인의 하위변인인 ‘친구지지’ 변인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활동인식’ 변인은 $\beta=.400$, $p<.001$ 로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친구지지’ 변인은 $\beta=.177$, $p<.01$ 로 그 다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원봉사참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변인은 활동실태 변인의 하위변인인 ‘활동인식’ 변인이며, 그 다음 순위의 영향변인은 대인지지변인의 하위변인인 ‘친구지지’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2절 연구결과의 함의

1. 변인별 영향력

1) 참여동기의 영향력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 면에서 세부 요소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외부 기대’ 측면의 각 요소들은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삶의 의미를 찾거나, 자신의 경험이나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신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참가한다거나, 자원봉사단체의 안내를 통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등과 같이 내적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에 보다 생활의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원봉사 참여 노인에게는 참여동기의 영향력을 볼 때 외적인 보상보다 내적인 보상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참여 노인의 가족, 이웃, 친구 등과 같은 타인에 의한 권유나 봉사에 대한 대가 등과 같은 외적인 보

상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후에 생활만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겠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 자체에서 오는 의미 있는 내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참된 삶의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그 자체가 삶의 행복감을 경험케 하고, 나아가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할 때 보다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와 지속을 위해서는 주변의 권유 같은 외부적 참여동기의 유발보다는 자원봉사단체 등과 같은 기관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욕구 충족의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용이한 접근성의 배려를 통한 내적동기의 유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대인지지의 영향력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대하여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를 받았을 때 더욱 삶의 만족을 경험한다. 특히 가족의 지지는 친구의 지지보다 더 높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다. 이는 가족을 비롯한 긍정적인 지지가 보다 생활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으며, 보람 있는 활동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온정적 지지가 있어야 하고, 자원봉사기관 등에서는 이러한 온정적인 지지를 감안하여 가족 공동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의 지속과 이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활동실태의 영향력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 활동실태 변인에서 세부 요

인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활동인식요인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확실한 인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때, 보다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자원봉사참여를 이룰 것이며, 여기에서 생활의 만족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활동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활동내용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자원봉사의 가치와 철학을 내면화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

(1) 성별의 차이에 대한 배려

자원봉사 참여 노인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남, 녀의 성차에 의해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생활만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입증되어 왔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성에 비하여 남성 참여자들에게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격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2) 배우자상황과 가족구성원의 차이에 대한 배려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생활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고, 유의수준이 거의 5%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배우자 상황이 생활만족도와 어느 정도 관련

이 있는 변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며, 실제 많은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등에서는 자원봉사 참여 노인에 대한 개인 특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서는 개인 특성 중 가족 구성원이 어떠한가에 따라 생활만족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의 순위로 보았을 때, 배우자와만 살거나 혼자 사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 비하여 생활만족도 평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선행연구들에서도 동거가족의 형태에 있어 혼자 사는 경우와 같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사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애정을 쏟을 여력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동시에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봉사기관 및 봉사단체 등에서는 참여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특성에 따라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분석결과 함의

앞에서 살펴 본 변인별 영향력에 대한 함의를 좀더 함축적으로 밝혀보겠다.

첫째, 자원봉사참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참여동기의 영향력을 볼 때 외적인 보상보다 내적인 보상이 보다 중요하므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자체가 삶의 행복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와 지속을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심리적 동기 유발 조성여건이 필요한 함의를 갖는다.

둘째, 자원봉사참여 노인이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를 받았을 때 더욱 삶의 만족을 경험한다는 결과는 가족을 비롯한 친구의 긍정적인 지지가 보다 생

활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에 보다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주변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한 함의를 갖는다.

셋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실태 변인에서 세부요인 중 활동인식 요인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즉, 노인 자신이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활동인식의 제고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활동영역을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한 자원봉사의 가치와 철학을 내면화 할 수 있는 활동인식의 고취를 위한 자원봉사 사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함의를 갖는다.

3. 연구의 발전

이상의 연구 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인 후속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60세 이상 노인으로 하여 수도권의 지역 9곳에서 표집 함으로써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표집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적 여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 변인으로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배우자 상황, 가족구성원, 생활수준 등 7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각 변인별로 세부 영역에 따른 충분한 표집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통계적인 명확한 차이를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세부 영역별로 충분한 사례가 표집될 수 있도록 유층표집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원봉사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으며, 생활만족도는 일반적인 생활만족도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자체의 만족도인 자원봉사활동참여 만족도를 조사하고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본 연구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고 생활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자원봉사의 지속과 생활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과제의 실현을 위한 실증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 수준은 최고치 100으로 환산하여 평균 70.32점으로 비교적 만족도 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조사결과 분포의 왜도가 부적 편포를 나타내어 자원봉사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 수준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노인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참여 노인의 생활만족도 수준은 높은 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자원봉사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주요 독립변인으로 4개 영역을 선정하고 각 영역마다 세부요인 선정을 통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상당부분에 걸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변인 첫째영역인 ‘참여동기’ 전체에 있어서는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 변인 중 ‘심리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에서 생활만족도와의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 참여 과정에서 심리적 측면이나 생활적인 측면에 대한 동기가 긍정적일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인지지’ 영역에서는 대인지지 전체 점수뿐만 아니라 세부영역 요인에

서도 생활만족도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등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활동 상태’ 영역에서는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인식 등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기간이 긴 사람들이 기간이 짧은 사람들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활동시간이 빈번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았으며, 활동인식이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 영역에서는 성별이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 비하여 여성들이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설정한 변인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활동상태’ 변인 중 ‘활동인식’ 변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대인지지’ 변인 중 ‘친구지지’ 변인이었으며, 나머지 변인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분석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주로 자신의 경험이나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고, 건강유지 및 여가활용 등이 주로 작용한 조사결과에 비추어 이들의 자원봉사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노인 인적자원의 적극적 활용대책을 전방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 인적자원의 활용과 자발적 참여의 촉진을 위해서 노인자원봉사 활동경로 및 활동분야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자원봉사 참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인지지(가족지지, 친구지지) 요인이 매우 관련 높은 조사결과의 사실에 비추어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족과 친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 한편 참여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노인 가족이나 친구들이 같이 참여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단위를 개인에서 가족단위, 친구단위 등으로 조정하여 공동단위의 조직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의 제작과 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서 활동상태 변인의 하위요인

인 활동인식 요인이 매우 비중이 큼에 따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활동영역을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한 자원봉사의 가치와 철학을 내면화 할 수 있는 활동인식의 고취를 위한 자원봉사 사전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2절 제언

첫째, 자원봉사참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참여동기 변인 중 하위영역의 영향요인 가운데 ‘심리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의 동기가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분석 결과를 존중하여 참여동기의 영향력을 고려한 노인 자원봉사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즉,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참여동기 변인에서 심리적인 동기 면과 생활적인 동기면의 영향력을 볼 때 외적인 보상보다 내적인 보상이 보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자체가 삶의 행복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와 지속을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심리적 동기 유발 조성여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유관기관에서는 노인의 자발적 자원봉사참여의 동기유발과 참여촉진 및 그 활동의 지속을 위해서 자원봉사참여 노인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활동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노인자원봉사 활동경로 및 활동분야의 확충과 전문성을 가진 노인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 구축으로 노인의 자원봉사에 용이한 접근성을 갖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참여 노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가운데 대인지지

변인이 매우 관련 깊은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참여 노인이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를 받았을 때 더욱 삶의 만족을 경험한다는 분석결과는 가족을 비롯한 친구의 온정적인 지지가 보다 생활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노인 자신의 주요한 사회적 지지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자신감을 획득하고 참여에 열의를 갖게 되며 지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어 그로 말미암아 생활의 만족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이 함께 하는 봉사활동은 가족성원간의 이해와 유대를 드높여 가정의 결속을 가져오며 친구간의 안내와 협조를 통한 봉사활동 역시 사회생활에 있어 동질감 회복과 사회적 연대의식을 갖게 하는 사회통합의 유익을 가져오며 이러한 경우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을 유발하는 한편 이를 통한 사회공헌의 심리적 만족이 생활의 만족으로 연결되는 상승효과를 경험케 한다는 데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족과 친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 한편 개인단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노인가족이나 친구들이 공동으로 참여 활동할 수 있도록 가족공동이나 친구들끼리의 집단조직 등으로 참여단위의 조정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자원봉사참여 노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봉사활동 실태변인에서 '활동인식'요인이었음이 분석결과 밝혀졌다. 노인 자원봉사의 지속과 이와 관련한 생활만족의 제고를 위해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노인 자신의 확실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는 조사결과인 것이다.

이 결과에 의하여 자원봉사참여 노인이 자원봉사에 대한 참된 가치나 보

람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내용의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자원봉사의
다양하고도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성구(2004). "노인 자원봉사 활동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신욱(2005).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적자원개발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 과 인력개발 8(2).
- 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2004). 「저 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제35회 국 경과제회의 보고참고자료.
- 고승덕(1995).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양곤 외(2003). 「노인과 자원봉사활동」. 학지사.
- 고윤미(2004). "환경NGO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주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정민 외(2002).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연구원.
- 권육상 외(2001). 「노인생활건강」. 서울: 유평출판사.
- 권중돈 외(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 권해수(1999). "시민단체의 조직화과정과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보.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기영화(2005). "고령층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과 인력개발 8(2).
- 기획예산처(2002).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대응: 고령화 진전과 예상되는 주

요정책과제」. 기획예산처.

김기태 외(2002).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박영사.

김남순(1997). 자원봉사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김동배 외(1997). 「전국자원봉사센터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_____ (1995). "자원 활동의 이해". 자원 활동 정보편람. 한국여성개발원.

_____ (1997).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과제". 연세사회복지연구

4.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_____ (1999).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집문당.

_____ 외(2000). 노인 자원봉사활동 및 여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2000

년도 교육부 노인교육정책 연구과제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_____ (200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학지사.

김미혜 · 정진경(2003). "노인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헌신과 생활만족에 관
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김민정(1998). "자원봉사활동과 시험이 포함된 교과과정이 일 간호전문대학
생의 자아존중감,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Immunoglobulin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 37(1).

김범수(1992). 「재가복지론」. 서울: 홍익재.

_____ (2001). 「자원봉사의 이해」. 서울: 학지사.

_____ 외(2004). 「자원봉사의 이해」. 학지사.

김상욱(2000). "재가노인부양의 태도 및 행위(3)". 한국사회학, 34(4).

김성경(2001). "자원봉사 조직과 전달체계 문제는 없는가?". 한국자원봉사
포럼 제20회 포럼(2000). 자원봉사포럼 창립7주년 자료집.

서울: 한국자원봉사포럼.

김성순(1991). 「고령화 사회와 복지행정」. 서울: 홍익재.

_____ (2003). 「고령사회정책론」. 서울: 홍익재.

- 김수연(1997).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옥·박영주(2000).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행위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간호학회지 2(1).
- 김숙경(2002).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자의 지속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양주(2002). “일본문화의 이해”,
(<http://www.paichai.ac.kr/~yjkim/ujc2002/help/gu.htm>).
- 김연명(1995). “시민적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보장”. 통일한국 143. 평화문제 연구소.
- 김영모(1990). “한국노인복지정책 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_____(1995). 「현대사회정책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 김영호 외(2002). 「자원복지활동과 복지교육」. 서울: 학문사.
- _____(2005). “일본의 볼런티어 활동 현황과 연구동향”. 창립기념 한국 자원봉사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영호·오정옥·전형미(2002).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김종숙(1987).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춘성(1994). “한국 노인문제에 대한 교환이론적 접근”.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1986).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연구”. 성신연구 23. 성신여자대학교.
- 김필례(2000).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송파노인 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옥(2004). 「자원봉사관리 활성화와 전문가 연대」.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창립대회자료집.

김희연(2002). “지역사회복지의 네트워크 분석;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류기형 외(2001). 「자원봉사론」. 서울: 양서원.

모선희(2002). “노인주간보호사업 운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6(1).

_____ 3인(2005).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모창배(1992). “여가활동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동석 · 김대환 · 이연선(2004). 「고령화 쇼크」. 서울: 굿인포메이션.

박래정 · 양희승(2005). “고령시대, Business Challenge & Opportunities”. LG경제연구원.

박재간(1983). 「노인여가의 구조적 특징과 그 유형」, 한국인구보건연구원. 3월호.

박정희(1994). “자원봉사 활동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충선(1998). “노년기의 생활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2).

박태영(2004). 「자원봉사론」. 서울: 백산.

백순명(2000). “노인 전문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재관(2002a).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노인복지연구 14.

_____ (2002b).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51.

보건복지부(1999). 「노인보건복지중장기발전계획」. 보건복지부.

_____ (2000a). 「보건복지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_____ (2000b). 「고령화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서울: 보건복지부.

- _____ (2002).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_____ (2005a). 「200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_____ (2005b). 「2004 보건복지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 블런티어21(1999). 「'99 한국인의 자원봉사 의식 및 활동 현황」. 서울 : 사단법인 블런티어21.
- _____ (2003). 「2002 한국인의 자원봉사 및 기부 현황」. 서울 : 사단법인 블런티어21.
- _____ (2005). 「2005 한국인의 자원봉사 및 기부 현황조사연구」. 서울 : 사단법인 블런티어21.
- 블런티어 21 옮김. Margriet-Marie Govaart 외 엮음 (책임번역: 이강현)(2002). 「Volunteering Worldwide」.
- 사회복지연구회(1999). 「현대사회의 자원봉사전론」. 서울: 유풍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2001). 「퇴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_____ (2002).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서병숙(1994). 「노인연구」, 서울:교문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 「서울시 자원봉사자 활용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석재은(1998). “경로연금의 현황과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25.
- _____ (2002).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학 50.
- 석재은·김태완(2002). “빈곤 및 소득분배 동향 :1996~2002 2/4분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영혜·정길정(2000). 「자원봉사」. 서울: 동문사.

- 손연기(2000). “노인복지에 있어서 정보화의 역할”. 노인복지연구 8.
- 송정선(1996).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미영 외(2004). “여성노인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7(2).
- 양창삼(1997). “사회봉사의 철학과 기능”. 대학의 사회봉사.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 서울: 한양대출판원.
- 엄동욱 외(2002).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윤민혁(2000). “노인자원봉사자의 참여도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호(1995).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현·천희·최유진(2001). 「자원봉사센터운영매뉴얼」. 서울: 블런티어21. 행정자치부.
- 이강현·김성경(2003). “우리나라 성인의 자원봉사 참여 실태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 2(1).
- 이상안(2003). 「현대사회봉사론」. 박영사.
- 이성록(2003a). “자원봉사센터의 현실과 비전”. 전국자원봉사센터실무자워크샵 자료집.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 _____ (2003b). “자원봉사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동인의 영향력”.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사회사업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4). 자원봉사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모형개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
- _____ (2005). 「자원봉사 매니지먼트」. 미디어숲.
- 이우복(199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원덕·장지연(2002).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서울대-OECD 국제세미나 발표집.

장세철 외 7인(2004). 「현대노인복지론」. 홍익재.

장인협·최성재(1993, 1997).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장중탁(2000). “노인복지 정보화 추진전략”. 노인복지연구 8.

장지연(2002). “고령연금로자의 경제활동과 은퇴.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서울대-OECD 국제세미나 발표집.

장하진 외(2002). “인적자원개발의 형평성 제고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 정책위원회 정책연구 2002-05.

장 현 외 1인(1996). “노인생활만족도에 관한 시간적 차원의 연구”. 한국노년학 16(2).

정경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정광섭(2001). “노인의 생활실태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도서노인과 도시노인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미자(1997). “광주광역시 노인의 여가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정지영(2003). 「실버라이프에 대한 이해」. 서울: 학문사.

정태연 외 1인(2005). “노년기의 외로움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 탐색”. 한국노년학 제25권 1호.

조경옥(2005). “여성 노인의 건강 지위, 사회적 지지와 여가 활동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7.

조성남 외 2인(1998). 「고령화 사회와 중산층 노인의 사회활동」. 집문당. 연구총서 제 51집.

- 조옥희 외 1인(1991). "홀로된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9(4).
- 조휘일(1990).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1998).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서울: 홍익재.
- 주성수 외 1인(1993). "노부부와 홀로 사는 노인들 간의 일반건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13(1).
- 최성재(1993). "노인복지 정책의 장기적 발전방향". 사회복지 1993년 봄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최순남(1989).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홍익재.
- _____(2002). 「현대노인복지론 - 제4판」. 서울: 법문사.
- 통계청(2005a).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_____(2005b). 「2005 고령자 통계」. 통계청.
- 한국개발연구원 · KDI (2002).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노년학회(2000). 「노년학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 한국 노인문제 연구소(2000). 「노인복지정책관련 국민대토론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노인 정책 동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2004a). 「제1차 자원봉사관리자 포럼 자료집」. 서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 _____(2004b). 「2004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 _____(2004c). 「2004년 정기총회 자료집」. 서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 한국자원봉사포럼(2001). 「자원봉사포럼 창립7주년 기념 자료집」. 서울: 한국자원봉사포럼.

- 한국자원봉사학회(2005). 「자원봉사연구의 세계적 동향」. 서울: 한국자원봉사학회.
- 행정자치부(2003). 「2003 자원봉사활성화 추진방안」. 서울: 행정자치부.
- _____ (2005a). 「'05년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 행정자치부.
- _____ (2005b).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배경. 보도자료.
- 허정무(2000).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서울: 협신사.
- 황진수 (1999). "우리나라 노인 권익 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복지학회.
- _____ 외(2001). "고령자 취업 활성화 방안". 한국노년학 21(1).
- _____ (2003). "준·고령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한국산업인력공단.
- _____ (2005). 「노인복지정책론」. 한성대학교출판부.

2. 국외문헌

- Atchley. R. C.(1977). *The Social Force in Later Life*.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in Publication.
- Black, B. & Dinitto, D.(1994). "Volunteer Who Work with Survivor of Rape and Battering : Motivation, Acceptance, Satisfaction, Length of Service,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0.
- Brudney, J. L.(1990). *Fostering Volunteer Programs in the Public Secto*. San Francisco: Oxford. Jossey-Bass Publishers.

- Brudney, Jeffrey L., Warren, Robert. (1990). Multiple Forms of Volunteer Activity in the Public Sector: Functional, Structural, and Policy Dimension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19(1). Spring.
- Chambre S. M.(1984). "Is Volunteering A Substitute for Role Loss in Old Age? An Empirical Test of Activity Theory". *The Gerontologist*. Vol, 24, No, 3. p. 296.
- Cutler, N.E.(1979). Aged variations in the dimensionality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34. pp. 96-100.
- Dasaratha V. Rama, Sue P. Ravenscroft, Susan K. Wolcott, & Edward Zlotkowski(2000) "Service-Learning Outcomes: Guidelines for Educators and Researchers".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15. pp. 657-692.
- Davis, M.A. Neuhauser, J.M., Morits, D.J. & Segal, M.R.(1992). Living arrangements and survival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 the NHANES I epidemiologic flow-up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2(3). pp. 401-406.
- Heady, B. & Wearing, A.(1992). *Understanding Happiness: A Theory of Subjective well-being*. New York: Longman.
- Johnson, H.(1998). "Retirement Special; Boom Years". Worth. April.
- Jos Sheard(1995). "From lady boundtiful to active citizen". Justin Davis Smith, Colin Rochester & Rodney Hedley, *An Introduction To The Voluntary Sector*, London :

- Routledge. p. 115.
- Kalish, R. A.(1975). *Late Adulthood :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rkeley : cole publishing Co.
- Krause, N. & Borawski-Clark, E.(1995). Social class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mong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35(4). pp. 498-508.
- Maslow, A. H.(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2nd ed.). New York: Harper and Low.
- Moore, S.(1993). *Social Welfare Alive. Cheltenham : Stanley Thornes*. New York : Open University Press.
- Moore. L. F.(1985). *Motivating Volunteers*. The Vancouver Volunteer Centers. Pub.
- NASW(1997). *Encyclopedia of Social Work*. 2. p.1582.
- OECD(2000). "Implementing OECD job strategy". *Assessing. Performance and Policy*. Paris.
- OECD(1995). *Universal Service Obligations in a Competitive Telecommunications Environment*. OECD.
- _____(2000). *Facts and Trends*. OECD.
- Oscar, B.M.(1982). Religion and community oriented attitude. *Journal for Social Scientific of Religion*. 21(1). pp. 48-58.
- Paul J. Ilsley(1990). *Enhancing the Volunteer Experience*.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pp. 7-12.
- Quinn, W. H.(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Riley, M. W.(1993). "Education Opportunities for People do All

Ages". Keynote address at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Gerontology in Higher Education. Louisville. KY.

Schalock, R.(1996), *Quality of life*. New York: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Sullivan, M.O.(1981). Senior religious-a column for the over fifties.
Religious Life Review. 1. pp. 310-349.

UN(2002).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xperts Seminar
on Ageing. Geneva. January 2001*.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 Madrid 8-12 April, 2002.

_____(2004). "In a Nutshell: Volunteerism and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UNVolunteers"..
<http://www.unv.org>

Vroom, V. H.(1964).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3. 기타

동아일보(2003. 10. 5 - 10. 9). "고령화 사회 대책 시리즈<1>-<5>".

_____(2003. 11. 11). "모두의 숙제 '고령화 사회' ". 김용익.

세계일보 (2004. 11. 1). "초고속 고령화 사회" .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
제학)시론.

업코리아(2003. 11.24). "세계적인 석학 제레미 리프킨 인터뷰(1)".

조선일보(2002. 5. 14). "EU, 정년퇴직제 폐지 추진".

_____(2002. 12. 31). "고령사회 다가온다" .고령화 사회 대책 시리즈.

중앙일보(2005. 6. 30) “저 출산·고령화 어떻게 대처하나”.

<http://www.gg.go.kr> 경기도청.

<http://www.iagg.com.br> 국제노년학회.

<http://www.un.org> 국제연합.

<http://koreapeople.co.kr> 대한노인회.

<http://www.karpkor.org> 대한은퇴자협회.

<http://www.bls.gov> 미국노동부.

<http://www.aaup.org> 미국대학교수협회.

<http://www.ssa.gov> 미국사회보장국.

<http://www.aarf.org> 미국은퇴자기금.

<http://www.pointsoflight.org> 미국 촛불재단.

<http://volunteer.seoul.go.kr>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http://silverworld.co.kr> 실버언론.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inews.org> 한국노인복지학회.

<http://www.volunteer.or.kr> 한국자원봉사 연합회.

<http://www.krivet.re.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ABSTRACT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ies

Lee, Sung-Ok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 to measure the satisfaction of senior citizens'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and b)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the satisfaction they derived from volunteer work, and c)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future policy-making to improve senior citizens' continuity in volunteering and their satisfaction in volunteer work.

Three hundred thirty-nine senior citizen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re were 169 (49.9%) males and 167 (49.3%) females. The data was collected via survey with senior citizens who participated in the volunteer activ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Korea.

Methods of data analysis were conducted via correlation,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12.0.

The major findings from empirical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mposite score of the variables related to "motivation in volunteering (motivation)" and satisfaction in lif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subcomponent variables, psychological and daily activity-related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That is to say, volunteers who have a sound understanding of volunteering were more satisfied with life.

Second, the composite score of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lated to life-satisfaction. In addition to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osite scores, volunteers who have high scores on the subscales, such as support from family and support from friends, were more satisfied with life than those who had lower scores on support from family and support from friends. That is to say, volunteers who obtained higher support from their family and friends were more satisfied with life.

Third, volunteering activity-related variables, such as duration of volunteering activity, hours spent for volunteering, and perceptions of volunteering,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That is to say, the duration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frequency of volunteering, and positive attitudes on volunteering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atisfaction in life.

Fourth, in general individual characteristics were not much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but sex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atisfaction in volunteering. Compared to males, females were more satisfied with life.

Fifth, among the four such factors/variables as motivation for

volunteering, characteristics of activities, support,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 sub category of characteristics of activity, perceptions of volunteering ($\beta=.400$, $p<.001$) and support of friend-related variables ($\beta=.177$, $p<.01$)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atisfaction in life.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motivation in volunteering and satisfaction in life were low, but the aspects of volunteering psychological and daily activity-related variabl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Second, variables related to personal support were associated positively with life satisfaction.

Third, variables related to volunteering activity were not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but variables related to duration of volunteering activity, hours spent for volunteering, and perception of volunteering,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Fourth, except for gender, individual characteristics were not much associated with satisfaction in life.

Fifth, among the four variables, such as reasons for/or motivations for volunteering, characteristics of volunteering activities, support,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 subcomponent of activity-related variables, perception of volunteering and personal support-related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atisfaction in life. Compared to personal support, perceptions of volunteering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could be offered in order to enhance the duration of senior citizens' volunteer work and their satisfaction in life:

First, in order to utilize such human resources as senior citizens and to expand senior citizens'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the government should offer resident-friendly programs to expand senior citizens' volunteering career and activity areas.

Second, in order to facilitate senior citizens'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collaborative participation, which can be expanded from single participation to family and friends, should be encouraged.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diverse activity programs along with eligible management systems for the activities be implemented.

Third, to enhance senior citizens'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and the volunteer's satisfaction in life, systematic pan-national volunteering programs such as "senior citizen's volunteer corps" should be organized and launched. In order to implement and expedite senior citizens'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optimum policy and systems are necessary.

Key words : volunteering,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senior citizen, life-satisfaction

<질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 어르신의 자원봉사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르신의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어르신께서 답변 주신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5년 10월 일

0 지도교수 : 한성대학교 황진수 교수님

0 연구원 : 한성대학교 대학원 이성옥

연락처 : 02)745-3351, 011-303-5003

e-메일 : ok5003@yahoo.co.kr

I. 다음은 어르신께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	나의 자원봉사 참여 동기는	매우 고려 하였다	대체로 고려 하였다	그저 그렇다	고려 하지 않았다	전혀 고려 안했다
심리적 인 면	①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②나의 경험과 기술을 나누기 위해서					
	③종교적 신념의 실천을 위해서					
생활적 인 면	①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②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					
	③나의 건강생활을 위해					
외부의 기대면	①가족 친지의 기대					
	②이웃이나 친구의 기대					
	③다른 사람의 권유나 추천					
사회적 자극면	①언론 매체의 홍보를 통해					
	②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등의 활동을 통해					
	③자원봉사기관의 안내를 통해					
사회적 보상면	①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②봉사해서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 있어서					
	③봉사한 대가로 용돈이 생겨서					

II. 어르신 의 자원봉사 관련해서 가족이나 친구 분들이 어르신께 보여준 관심과 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분	자원봉사 참여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가족들은 내가 자원봉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나의 가족들은 내가 자원봉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	나의 가족들은 내가 하는 자원봉사에 대해 조언이나 도움을 준다.					
4	나의 가족은 나와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다.					
5	내 친구들은 내가 자원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6	내 친구들은 내가 자원봉사 하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지해준다.					
7	내 친구들은 내가 하는 자원봉사에 대해 조언이나 도움을 준다.					
8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다.					

Ⅲ.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어르신은 자원봉사활동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 ① TV(케이블),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
- ② 전단, 포스터 등 단체 홍보물을 통하여 ()
- ③ 단체의 프로그램참가를 통하여 ()
- ④ 친구나 기존 회원의 권유를 통하여 ()
- ⑤ 종교나 사회단체의 권유를 통하여 ()
- ⑥ 단체장 및 단체직원의 권유를 통하여 () ⑦ 기타 ()

2. 어르신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1년 미만 ()
- ② 1년 - 2년 ()
- ③ 2년 - 3년 ()
- ④ 3년 - 5년 ()
- ⑤ 5년 이상 ()

3. **어르신은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 ① 주 _____ 회 _____ 시간
- ② 월 _____ 회 _____ 시간
- ③ 비정기적으로 월 _____ 시간
- ④ 기타 _____

4. 현재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하십니까?

- ① 환경보호, 감시 () ② 지역청소 및 교통정리 ()
- ③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감시 () ④ 행정업무 보조 ()
- ⑤ 한문, 서예, 예절 등 전통문화전수 ()
- ⑥ 노인 · 장애인 · 청소년 등 요보호대상자 가사보조, 말벗, 상담 등 ()
- ⑦ 기타()

5. 다음은 어르신의 활동인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 분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드는 시간은 적절하다.					
2	내가 자원봉사참여를 하는 곳까지의 거리는 적절하다.					
3	부여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량과 시간은 적절하다					
4	내가 수행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대체로 나와 잘 맞는다.					
5	내 활동은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6	내 활동은 내가 봉사하고 있는 기관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지 않다.					
7	내 활동은 내가 노력한 것의 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8	내 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9	내 활동은 시작한 일을 완전히 끝마칠 때까지 계속 참여할 수 있다.					
10	내 활동은 나의 개인적인 창조성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제약이 많다.					
11	내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12	내 활동은 시작과 끝이 명백하다.					

IV. 다음은 어르신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나이든 지금도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행복하다					
2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지금이 더욱 보람 있다					
3	나는 지금도 바쁘고 가치 있는 생 활을 한다					
4	내가 지금하고 있는 일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흥미롭고 재미 있다.					
5	현재 나의 건강상태는 내 나이 또 래의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다					
6	나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난 다					
7	나는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끼고 있 다					
8	나는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다					
9	나는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다					
10	나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었는데 불행히도 지금 그렇 지 못하다					

V. 다음은 어르신 개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어르신의 성별은? ① 남성_____ ② 여성_____

2. 어르신의 연세는?

- ① 60 - 69세() ② 70 - 79세()
③ 80 - 89세 () ④ 90세 이상()

3.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무학() ② 서당()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 ⑥ 대학교 이상 ()

4. 어르신의 종교는?

- ① 불교() ②천주교() ③ 기독교()
④ 민족종교() ⑤ 기타() ⑥기타()

5. 어르신의 현재 배우자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① 배우자와 함께 산다() ②사별했다() ③ 별거 중이다()
④ 이혼했다() ⑤ 기타()

6. 어르신은 현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모두 표시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혼자 산다 () ② 배우자 () ③ 결혼한 자녀 ()
④ 결혼하지 않은 자녀 () ⑤ 손 자녀 () ⑥ 친척 ()

⑤ 기타()

7. 어르신의 사회경제적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높다 () ② 중상이다 () ③ 중간이다 ()
④ 중하이다 () ⑤ 낮다 ()

-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